朝鮮日報 夕刊 二十三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 川越大使着任해도 日中關係의調整은多難

## 若杉參事官國府訪問한結果 國交의將來를悲觀

【南京二十二日發同盟】若杉參事官은 二十二日外交部長張群氏와 下 國民政府要人과 會見하고마치내 二十三日 上海에 歸還하기로되엿다 今回 國民政府를訪問한結果는 極히 悲觀的으로 密輸其他 北中諸懸案에 對하여는 何等解決策에 到達되지 못하야 그대로 推移할時는 中國側도自暴自棄하는結果 如何한 方策을 取할는지도 豫期할수업는 狀態인데 若杉氏는 卽時 右結果를 外務當局에 報告하는同時에 重大進言을 하기로 되엿는바 川越新大使着任으로 果然 이停頓된事態를 打開할수잇슬는지 各方面에서 深甚한關心을集中하고잇다

### 國府抗議一蹴

【南京二十二日發同盟】若杉代理大使는 二十二日午前十一時 國民政府外交部에 外交部長張群氏를 訪問하고 一般日支問題에 關하야 約三十分間 意見을 交換하엿다 席上에서 張群氏는 北中密輸問題及 北中增兵의重大性에對하야 大要左와如히 强調하야 日本側의考慮를 求하엿다

一、北中密輸問題 北中의密輸橫行은 中國의 關稅收入에大打擊을與하고 財政을 破壞할이 더욱甚한바잇다 右는 日本當局이 中國의取締要求를 無視하는데서原因하는것으로 日本側의 誠意잇는取締를 希望한다

一、北中駐屯軍增兵問題今回의北中駐屯軍增兵으로 中國國民은 多大한 刺戟을蒙하야 마치日本이 中國의主權을 壓迫하려함과如한 印象을맛고잇다 右는 中國으로서重大한問題로 日本側의 考慮를求한다

此에對하야 若杉代理大使는

一、北中密輸取締에 日本이 干涉하는事實은絕對로업다 그것은甚한誤解이다 密輸의最大原因은 中國의 高率關稅와 地方稅關吏의 怠慢에 基하는것으로 塘沽協定을 採用함은 本末顚倒이다

一、北中駐屯軍의增兵은 共產軍의華北脅威와 在留日本人의增加로因함에 不過한다 北淸事變議定書의 規定에依한것으로 中國의主權을 侵害壓迫하는것은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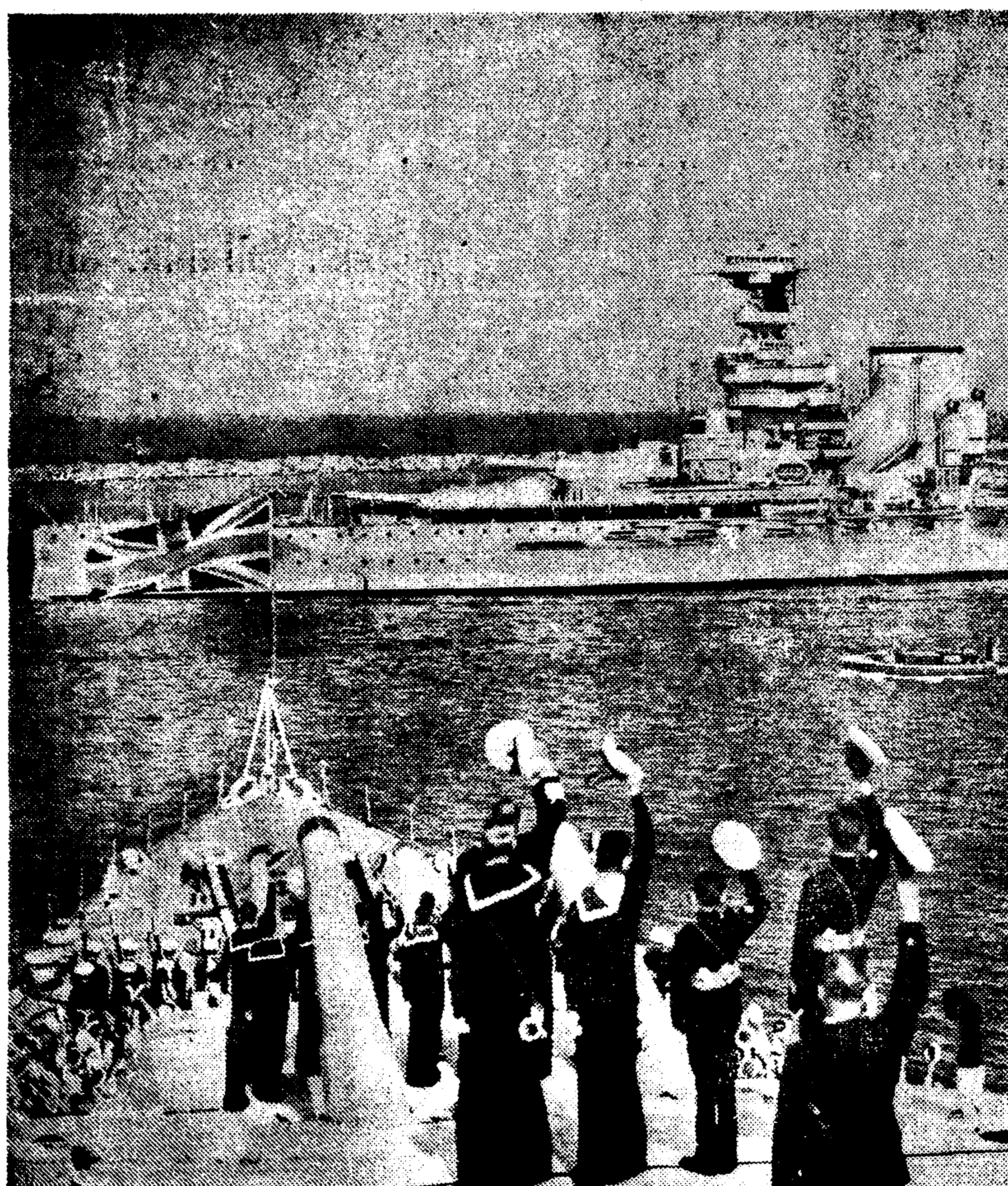
라고答하야 張群氏의抗議를 一蹴하고 兩者의意見對立된채로同十二時三十分會見을 終了하엿다

# 民族抗爭益激化 英駐屯軍倍增

## 混亂의팔레스타인形勢

【예루살렘二十二日發同盟】팔레스타인에잇서 猶太人과 아라비아人의民族抗爭은 勃發以來 이미 一個月餘를 經過하엿슴에도 不拘하고 依然 終熄되는模樣이업서 二十二日에는 猶太人根據地인테·아비브附近에 一齊히 數個의爆彈을 投한者가잇섯는데 多幸히 死傷者는업섯스나 現場一帶는 大混亂에陷하엿다 英國政府當局이 二十二日發表한바에依하면 팔레스타인의治安維持를爲하야 다시카이로로부터 步兵一個大隊 砲兵一個中隊를 增派하야 現駐屯兵力은 千七百五十名의 約二倍에 增加될터이다 過去一個月餘의 死者는左와如하다

猶太人 二十六名
아라비아人 十六名
基督敎徒 一名



□伊國에對한制動機인英地中海艦隊의旗艦퀸·엘리자베드號의威容

# 總動員秘密法案 政府、最後的努力

## 多少修正하야成立乎

【東京電話同盟】不穩文書取締法案과 함께 自由主義派의 反對로 衆議院各派의 挾擊을 바든 總動員秘密保護法案은 今議會에서 가장 不評判이로 不穩文書取締委員會에 併託되엿슴으로 會期의 나머지가 二日이나 아직 質疑에도 入하지안코 津田 次田法制局長官 松井資源局長官等이 中心이 되여 梅津陸軍次官以下 關係官도 熱心으로 各派를 說得하야 法案의 衆議院通過에 努力하야 廿二日에 이르러 政民兩派幹部及 委員의 態度도 一變되여 特히 貴族院에서는 右 法案의 送付를 기다려 可決하기로 讓步가 成立되엿슴으로 政府는 二十三日午後 退職金、不穩文書兩法案의 衆議院通過를 待하야 卽時 總動員秘密保護法案의 衆議院通過를 圖하야 二十四日까지에는 貴族院에 送付하려고 最後의努力을 繼續하기로되엿다 그러고 同案에對한 各派의 態度를 보면 政友會側에 잇서서는 아직도 多少의 修正이 잇슴으로 그決定까지에는 相當한 迂餘曲折을 免치 못할것이나 結局 多少의修正을 加하야 成立될것은 거이 疑心업다 이것으로 政府가 今議會에 提出한 法律案 四十八件은 全部成立되게 되여 政府는 議會外의 好成績을 收得하게되엿다

### 貴族院豫算總會

【東京電話同盟】貴族院의 豫算總會는 二十二日 午後一時四十二分 再開하고 곳 第五、第六分科主査의 報告가잇슨後에 質問에 들어가 佐佐木八十八氏(同和)가 國立工藝指導所에 關하야 松村義一氏(公正)가 右實施에 關하야 大森佳一男(公正)이 豫算案과 法律案과의 關係에 關하야 金成通氏(研究)가 東北救濟緊急策에 關하야 質疑가 잇슨後討議에 들어가 橋本辰二郞氏(研究) 前田利定子(研究)로부터 各各贊成意見을 陳述하고 滿場一致 可決한後 同三時四十九分 散會하엿다

### 貴族院米穀委員會

【東京電話同盟】貴族院의 米穀自治管理法案 特別委員會는 二十二日午後一時四十一分開會 山本米三氏(同成) 滿洲米에 對하야 倉庫의 補充措置에 對하야 內田重政氏(交友) 第四十二條第二項 第二條 第四條 第六項에 對하야 質問하고 有賀米穀局長으로부터 答한後 卽時 [illegible]에 入하야 同二時三十分一旦休憩하고 [illegible] 決議文案을 作成한다음 委員會를 再開하고 午後四時四十分再開 討論에入하야 松村眞一郞氏(研究)本案의實施는 [illegible] 그內容에對하여는 [illegible]點이잇스나 政府의 [illegible]을信賴하야 贊成한다고 [illegible] 原案대로 可決하고 同四時二十九分散會하엿다

### 零細對策決議文

【東京電話同盟】二十二日의 衆議院本會議에 滿場一致 可決된 零細對策樹立에 關한 決議案은 如左하다

政府는 來會期의 零細에 對한 根本對策에 關하는 追加豫算案 法律案을 速히 提出하는同時에 恒久對策을 樹立하야 第七十回帝國議會에 提出하라

右決議함

# 閣內不統一暴露로 英內閣危機直面

## 토마스植民相의辭任契機로 擧國一致內閣解消?

【倫敦廿二日發同盟】植民相 쩨·에취·토마스氏는 豫算案의漏洩責任을 負하고 볼드윈首相에게 辭表를 提出하엿는바 볼드윈首相도 內外의情勢에 鑑하야 辭表를 受理하기로 決定하엿다 英帝에드와드八世께서는 廿三日附로서 토마스植民相의辭表를 正式으로 聽許하실豫定이다 그리고 同氏의 辭職으로 現擧國一致內閣은 依然 閣內不統一을 暴露하게되여 重大危機에 直面하게되엿다

【倫敦二十二日發同盟】토마스植民相이 辭職한結果 볼드윈內閣을 根本的으로 改造하고 內治外交的으로 新生面을開拓할方針이라고 解釋되다 改造의重點은 此際 擧國一致內閣으로 抛棄하고 純粹한保守黨內閣으로하는가 依然擧國一致의 樣式을 維持하는가에잇는데 볼드윈首相은 第二段에基하야 여러가지로 맥도날드樞相、와일드쥐軍相等 巨頭와 協議하야 聖靈降誕祭까지에는 完全히 改造를 完了하리라고 觀測되다 政界의 消息에 依하면 自治領相말콤 맥도날드氏가 植民相에 轉하고 前外相호아氏가 自治領相으로 復任하지안흘가한다 호아前外相은 몬셀海相의後任으로 入閣하리라는說이 盛傳하는데 볼드윈首相은 來帝國會議에 備하야 自治領相에 起用하리라고 解釋된다 그러나 몬셀海相은 이機會에 辭職하리라고 觀測되는데 後任에는 土木相고아氏가 有力視되여잇다

# 蘇聯의對新疆工作 全面的活動開始

## 鐵道、自動車道路網建設코飛行學校도設立 各方面에實權을掌握

【廣東二十二日發同盟】新疆省에서 中國南部에 來着한 某有力者의情報로 傳하는바에依하면 蘇聯의對新疆工作은 着着進捗되여 鐵道道路網의 建設을비롯하야 勢力扶植의 全面的活動을 開始하엿는데 그重要한것을 擧하면

一、이리、스크、올무치間鐵道의近日完成
一、쎄기오포리、쥬그차크間鐵道敷設中
一、카슈갈、아리스카라샤헤間의隊商道路의 擴張修築中으로 此를 올무치、하미間의國道에連絡케할 計畫을 進行하고
一、蘇聯월키스탄의 東안잔、카슈갈間鐵道도 目下敷設中이다

右와如히 鐵道 自動車 道路、隊商路는 모도 蘇聯월키스탄地方에 連絡되여잇다 蘇聯參謀本部가 中國과 共同戰線을 베플고 對日聯合을 結成할 實際의 表現인것은 明瞭하다 그리고在目할것은 蘇聯은 一面에잇서對外力의 分散을 虞慮하고 對日外交의軟化策을 取함과如히 보히는것은 蘇聯一流의 트릭으로 事實은 以上의事實과如하다 그리고 內蘇工作으로는 新疆住民의 對蘇反感이 意外로 强한데 鑑하야 表面에 活動치안코 二十九名의 顧問을 各方面에 두어 實際的으로는 彼等이 實權을掌握하고 타수켄트飛行學校를 設立한것을 筆頭로 農業專門學校 其他 各種學校를 設立하고 漸次赤化勢力을 뻐치고잇다

# 米亞細亞艦隊의 將校一團蘇都行

## 小國參謀會議옵저버로出席? 赤衛軍巨頭歡迎準備

【哈爾濱二十二日發】數日前 北米合衆國亞細亞艦隊將校의 一團이 上海로부터 來哈하야 南部線으로 滿洲里를거처 蘇聯으로向하야出發하엿는데 一行의말에 依하면 彼等은 蘇聯을經由하야 莫斯科에 數日滯在한後 歸米할 豫定이라한다 그런데 일부러 遠廻하야 歸國함은 甚히奇異한 感이잇는데 彼等의 說明에依하면 一行은 海에실증이나 汽車旅行으로 歸國하기로決定하엿고 아울러 蘇聯生活의 實情과 社會主義의首都 莫斯科를 見學하려한다하나 目下 蘇聯이 大大的으로 策動하야東歐小國參謀本部代表者會議開催에까지 進展식힌事情을考慮할時 彼等의蘇聯行은이게 何等關聯이잇는것이라하야 注目되여잇다 勿論彼等은 公式으로 會議에는 參加치안트라도 옵저버로參加하기는 可能하다 卽現在莫斯科에는 라트비아國參謀總長갈르리、마니스將軍 리트와니아參謀本部의세르니우스大佐、에스토니아參謀本部의레크大中將、其他東部代表가 多數到着하여잇다 此際에 南中으로부터 일부러米國艦隊의一行이 訪莫하는것은 그에何等連繫가잇지안흔가 觀測되며 前記小國參謀本部代表者들을 莫斯科에參集식힌 크레물린當局은 盛大히彼等을 歡待하야 赤衛軍巨頭 보로쉬로프 부존누이에고로프 其他外政府 代表者가交交히獨逸의 脅威와 蘇聯의平和意圖及 戰爭計畫을 高調하야 彼等의 關心을自國側에 有利케 展開하려고 策動하고잇다

# 米海軍大擴張은 滿足한狀態到達

## 스탄들레作戰部長談

【紐育二十二日發同盟】스탄들레作戰部長은 二十二日午前 紐育三海軍大學卒業式에臨하야 米國海軍의現狀에對하야 左와如히述하엿다

海軍擴張案이 着着進行된結果 米國海軍은 바야흐로 海軍史上 가장滿足한 狀態에到達하엿다 建艦工作은 極히 健全한 進捗을 豫來하여도 全國도한海軍에對하야 滿意와熱意를 表明하고잇다

# 歸國途中에잇는 바트리오總督

## 아스마라에到着

【아스마라二十一日發同盟】에티오피아 總督 바드리오元帥는 歸還途中二十二日 正午飛行機로 아스마라에 到着하엿다 同總督은 夫人과맛나 맛사브港으로부터 一路伊太利本國으로 出帆할터이다

# 『팟시즘』에對한 個人自由의勝利

## 貧困의淸算爲하야方針樹立 佛社會黨首領의放送

【巴里二十二日發同盟】來新內閣의 首班社會黨首領 불룸氏는 二十二日夜 全國에 放送演說을 行하야 總選擧의 意義를 論하고 나아가 新內閣의 使命을 强調하엿다 右演說은 特히 米國에 中繼되여 多大한 關心을 惹起하엿다 佛國總選擧에잇서 左翼의進出과 그結果 新政府가 成立하게된것은 세가지重要한 意義가잇다 第一로 이事實은 共同制度 民主主義機構의 勝利를 意味한다 그리고 專制寡頭政治 及 팟시즘에對한 市民及個人의 自由의勝利이다 第二로 今回의 總選擧는 佛國國民에對한改新的 意義로서 新平經濟的不況打開와 貧困의淸算을向하야 新方針을樹立하고 이에向하야 邁進할 覺悟를 表明한것이다 그리고第三으로 佛國이어데까지 國際法을 尊重하고 國際的平等의原則과條約을 遵守하야 世界各國間의連帶的精神을 發揚하고더나아가 一般的軍事制服에 邁進하야 歐洲及 世界平和維持에 努力할 決意가잇다는것을 天下에表示한것이다

# 總督府大異動

(廿三日附)

(人事)總督府事務官 上瀧 基
陞敍高等官二等
命總督官房審議室勤務 (各道)總督府道事務官 松本 伊織
同 佐伯 顯
勅任官으로待遇
(警務)總督府事務官
命總督官房人事課長 新貝 肇
慶南警察部長 尾下部太郎
任總督府事務官(三等)
命警務局保安課長
慶北警察部長 伊藤 泰吉
任總督府事務官(四等)
命警務局警務課長
全南道理事官 林 勝壽
任總督府事務官(六等)
命內務局勤務
總督府警察官講習所敎授 藤崎 廣行
任總督府事務官(六等)
命警務局勤務
京畿道理事官 木野 藤雄
任總督府事務官(六等)
命殖產局勤務
鎭南浦府尹 朝倉 昇
任總督府專賣局事務官(四等)
命平壤專賣支局長
平南道理事官 高橋 英夫
任總督府事務官(七等)
命財務局勤務
忠南道事務官 大河原重信
任總督府稅關長命釜山稅關在勤
總督府事務官 小田 正義
任總督府稅關長命仁川稅關在勤
全南道事務官 阿部明治太郎
任總督府稅務監督局長(三等)
命咸興稅務監督局在勤
光州稅務監督局事務官 國分 重慶
任總督府稅務監督局長(四等)
命光州稅務監督局在勤
慶南道理事官 武田新太郎
任總督府稅務監督局事務官(五等)
任光州稅務監督局稅務部長兼經理部長
忠南道警視 鈴木 授
(警務)總督府警察官講習所敎授(六等)
總督府事務官 白石光次郎
任總督府道事務官(三等)
命平安南道內務部長
釜山稅關長 小池 泉
任總督府道事務官
命忠淸南道內務部長
新義州稅關長 瀨戶 道一
任總督府道事務官
命咸北警察部長
總督府事務官(內務地方) 富田 實雄
任總督府道事務官(五等)
命全北警察部長
總督府郡守(警察) 阿部 嘉一
任總督府道理事官(七等)
命全北在勤
總督府屬(內務) 藤綱 富夫
任道理事官(七等)
命平北在勤
忠北道警察部 日置 謙
任道理事官(七等)
命黃海道在勤
總督府屬(學務) 武尾 [illegible]
任道理事官(七等)
命平南在勤
總督府專賣局屬 牧山 正夫
任道理事官(七等)
命咸南在勤
總督府黃海道屬 山路 淸
任道理事官(七等)
命忠北在勤
總督府屬(警務) 松永 幹
任道警視(七等)
命忠南
(黃海)總督府道理事官 小笠 捷次
任府尹(四等)
命鎭南浦府在勤
咸北道勸業課部 宮崎完三郎
任郡守(七等)
命江原道鐵原郡在勤
專賣局事務官 齊藤 岩
命專賣局業參課長
(仁川)稅關長 吉岡 三甫
命新義州稅關在勤
(咸興)總督府稅務監督局長 芳賀 文三
命平壤稅務監督局在勤
(光州)稅務監督局長 古庄 逸夫
命京城稅務監督局在勤
(京畿警察)道事務官 佐伯 顯
命京畿道內務部長
(平南警察)同 下村 進
命京畿道警察部長
(全南警察)同 古市 進
命全北道內務部長
(咸北警察)同 下飯坂 元
命慶北道警察部長
(咸南警察)同 兵頭 儁
命平安南道警察部長
(全北警察)總督府道事務官 井坂圭一郎
命咸南道警察部長
(江原警察)同 山下 眞一
命慶南道警察部長
(咸南警察)同 兵頭 儁
命慶北道警察部長
(咸北警察)同 下飯坂 元
命全北道內務部長
(咸南)總督府道理事官 本多 武夫
命京畿道在勤
(平北)同 山本彌之助
命忠淸南道在勤
(忠南)同 鈴木沙奈夫
命全羅南道在勤
(忠北)同 岡 久雄
命慶尙南道在勤
總督府事務官 河野 節夫
依願免本官

## 人事·集會

▲井上鎭海要港部司令官 入京中이든바 二十三日午後十時五分 京城發歸任

▲擴重穗氏(開城府尹) 新任人事次 二十三日來社

## 八面鋒

◇ 觀察全北、그中에도 有名한 益山에서 五月一日以來 二十日間에 小作爭議가 七十五件。

◇ 立夏 모(?)種을 걸치서 移秧著作을 敢行함은 唯獨作人의 損害만될것인가。

◇ 維安時勢는 떠러지나 地主의 配給時勢는 올나가니 作人의 怨恨도 無理。

◇ 勿失其時는 農事의 第一條、布穀聲 차지러지기前에 爭議를 解決함이 急務。

◇ 男便그리워 自殺한 女子。딸을 따라 自殺한 어머니。

◇ 누가 이들을 封建的이라고할 터인가。純情과 孤獨이 가저온 悲劇으로 近來의 大作。


# 新日本의傑作品

## 型은싱거-미싱과同一

## 가격은舶來品半價!

陸軍省御用 文部省御推奬
海軍省御用 女學校採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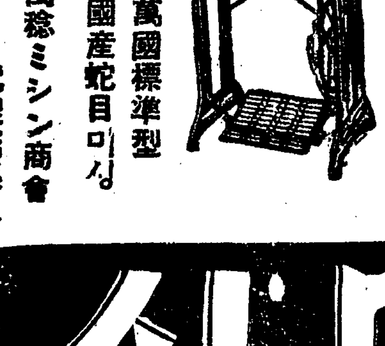
躍進日本!의覇者

이 款은 年來顯著한發展을하고잇는 躍進日本의工業界에 文字그대로의 進步發展의結晶으로서 世界的驚異를 밧고잇는 我國最初의本格的"國產蛇目재봉틀"을生產하게되엿슴니다.

國產 蛇目재봉틀은 萬國標準型을 採用하고잇는故로 모든部分品이 世界各國에서 마음대로 살수잇는것은 勿論、舶來品과比較하야서 조금만한遜色도업고 더구나、價格도半價로 될으로 只今은全世界第一의 優秀한世界品를壓倒하야 「싸고도 밋고」 멀리海外各國에까지 輸出이 急速하고잇는 중이고 잇슴니다.

東京 大阪의 本工場에서는 年產額二百三十萬圓에 達하고 從業人員四百餘名 只今은 自他가共認하는 東洋唯一의 미싱製造會社로 아잇슴니다.

全鮮進出을目的하고 一郡에一店을標準하야 代理店을募集하고잇사오니 希望하시는 區城을申込하시면年賣上豫想數及特定價格等을 詳細히回答하여드림니다.



萬國標準型 國產蛇目미싱

希望者는 京城府 萬稔ミシン商會 代理店係로

現在各代理店

洪原 李泰敏商店 / 延安 延安農林機械商會 / 惠山 鮮興商店 / 海州 福星商會 / 南原 朴琪永商店 / 南川 平山ミシン商會 / [illegible] 金津機械商會 / 昌城 甲子農業組合ミシン部 / 信川 信川ミシン商會 / 平原 李一鉉商店 / 東萊 李萬鉉商店 / 宜寧 宜寧商會 / 安岳 金乘律商店 / 鎭南浦 歐米機械ミシン商會 / 龍岩浦 鮮滿ミシン商會 / 江華 高必善商店 / 論山 中野商店 / 安城 安城ミシン商會 / 固城 千泰洪商店 / 新義州 朴聖鎬商店 / 金泉 朴容勳商店 / 晉州 二中商店 / 水原 水東ミシン商會 / 象浦 文唐八商店 / 松禾 李萬元商店 / 昌寧 李萬世商店 / 谷山 谷山ミシン商會

江西 平和商會ミシン部 / 開城 開城ミシン商會 / 忠州 中山ミシン商會 / 牙山 同商會 / 吉州 梁錫煥商店 / 榮州 安正錫商店 / 全州 合名會社三和商店 / 扶安 金在根商店 / 光州 光州ミシン商會 / 禮山 吳遠先商店 / 木浦 萬稔電器商會 / [illegible] / 城津 東京堂時計店 / 碧潼 鄭聖鎬ミシン商店 / 北靑 北鮮ミシン商會 / [illegible]

資本金百萬圓
東京大阪 帝國ミシン株式會社
朝鮮總代理店 萬稔ミシン商會
京城南大門通一丁目九九 電話本局(2)四五八三番 振替京城一四五二六番
本社 東京市中野區宮園町一〇
大阪支社 大阪市東區心齋橋筋南久寶寺町
各地支社 名古屋、福岡、橫濱、神戶、京都、青森、甲府其他

# 國產 蛇の目 미싱

# 護族의 聖將遺體 保衛의 赤誠翕然!

## 發起前드러온誠金이벌서千六百餘圓

## 乙支公墓山修保會發起!

오래동안잡초(雜草)속에 잠아두어 이민족에게 가위 버림을바터오늘 지문덕(乙支文德)장군의 묘를바로잡어 수축하자는소리가 평양 인사들의입으로부터 터지자울연히 모혀드는찬동은 약속한드시 이문제로 끄음려드러들게되엿다 조선민족이가진 대표적명장으로 그공과 업이비할데업시 큰어른의 무덤을자금까지 방대해오다가 과거의허물을 이자리에서깨끗하게 씻처버리자는 뜨거운정성으로모힌을지공묘산수보회는(乙支將軍墓山修保會)는 이십이일오후여덟시부터 평양기독교청년회관 안에서 발기인회를 열게되엿는바 조만식(曺晩植)씨의 개회사가잇슨후 김성업(金性業)씨의 경과보고가 잇고 [illegible] 다음 인사들을 선정한후 여러가지 토의를마치고 폐회하엿다 어로서 오래동안 푸대접을바터온 을지공의묘도 이로써바로잡게될터로 조선이되자 모름직이 정성을 표할것을기두르고잇다

▲實行委員長 曺晩植 ▲會計 [illegible] ▲庶務 金秉[illegible] ▲委員 金[illegible] 崔允[illegible] 李勳求 金東元 [illegible] 金性業

發起人氏名 [illegible] 金[illegible] 方[illegible] 呂[illegible]

[illegible] 崔允[illegible] 金性業外六十三人

發起前募集된誠金 中央日報三〇〇圓 朝鮮日報三〇〇圓 東亞日報三〇〇圓 尹致昊一〇〇圓 金性洙一〇〇圓 吳[illegible] 一〇〇圓 金宗[illegible]一〇〇圓 吳[illegible] 五〇圓 金東元五〇圓 韓[illegible] 五〇圓 金[illegible]五〇圓 林正[illegible] 三〇圓 [illegible]二〇圓 [illegible]一〇圓 金[illegible]五〇圓 [illegible]一〇圓 崔允[illegible]一〇圓 李勳求一〇圓 [illegible]一〇圓 李[illegible]一〇圓 合計金千六百六十圓也

乙支將軍墓山修保會趣旨書

乙支將軍이 누구나 우리로서 누가모르며, 乙支將軍이어떠한분이엇는냐 우리로서 나지아니하얏더면 千三百餘年前그때 우리의[illegible]가 어떠케되엿슬것이나 우리로서 누가모르랴。歲月은久遠하엿다 그러나 그[illegible]의 [illegible]어야 [illegible]히 [illegible]와아울러 [illegible]하고 도[illegible]하지 아니하냐。오직 [illegible]이라는 [illegible]의 末路가 存在의由來까지를 [illegible]하야 於[illegible] 將軍千秋不朽의大功에 對한[illegible]에 [illegible]한지도 저옥이동안이 오래나 저[illegible]山一[illegible]土는가春[illegible]의[illegible]을 밧지못하고 쏘한 [illegible]는커녕 심지어 [illegible] 封墳의 [illegible]치는[illegible]아래에 [illegible]되엿을따라 將軍의[illegible]直近 犯[illegible]한[illegible]이닉우[illegible]하야 [illegible]을바치려하얏스나 勝[illegible]이르지못하얏더니 이제修保에對하야 [illegible]이 時[illegible]하매 미처 安泰國等이 [illegible] 이어서安昌浩、가 거듭잇섯고 ◇ 일즉이 [illegible]의命과 地方의[illegible]

다 將軍이누구이냐 우리의[illegible]은크게되이 자못 [illegible]하다할지모르나 삼아 將軍墓山修保의事를 行하로하야금 不[illegible]한그네의[illegible]을리 우리의[illegible]에 [illegible]하게되야 오늘날 우리것이 [illegible]하나마 오히려 [illegible]들까지 아직것 口[illegible]을 [illegible]하는 낫것보다는 [illegible]人古老、乃至[illegible]에그치어 참다운[illegible]에서 버서 [illegible]이[illegible]하얏다할지라도 그[illegible]이自[illegible]하고 [illegible]이 [illegible]存하고 각하야보면 [illegible]이[illegible]存하고 가 두렷하게[illegible]하야왓다。다시생 古老의[illegible] [illegible]의[illegible] 에도不拘하고 山下의[illegible]人의指[illegible] 目은 어이[illegible]어야[illegible]아 오[illegible] 론이오、久[illegible]지라도 [illegible]한[illegible] 의[illegible]을 [illegible]히가추엇슬것이 무 의[illegible]이라、그[illegible]에어잇서서[illegible] [illegible]도업는[illegible]은 [illegible]만 元[illegible]아라 一日[illegible]을 [illegible]

◇ 옛、[illegible]大[illegible]의[illegible]、[illegible] 하게한이어찌一[illegible]의[illegible]라하랴。 야금 [illegible]의[illegible]를 부러이마지아니 [illegible]의[illegible]과 士[illegible]하 [illegible]를 [illegible]하야 [illegible] 山下로부터 [illegible]하는것의 [illegible]의[illegible]을 [illegible]하야 [illegible] 과 山[illegible]附近에 [illegible]를지어 [illegible] 를[illegible]을도울것과 位土를 만 드러 永久[illegible]에 [illegible]것等이모

다 目下의 일이니 우리는 다 가[illegible] 이일을 [illegible]어야할것이 며 아울러서 [illegible]을 [illegible]하는 이것이 [illegible]마나 [illegible]한가를[illegible] [illegible]어야할것이다 우리의 [illegible] 갓흔 이[illegible]이 [illegible]것 [illegible]에그처 지아니할진대 [illegible]의 [illegible]山一[illegible] 라。

에서 [illegible]의[illegible]을 [illegible]수가잇다 [illegible]하야 [illegible]의[illegible]을 [illegible]수가 잇다 아[illegible]업시대 뒤 이[illegible]山 一[illegible]라하라 [illegible]、[illegible]一[illegible]의[illegible] [illegible]하야도 [illegible]하려든 하물 며[illegible]山一[illegible]에 그저자아니할이

# 朝共全南同盟事件

# 第一回公判開廷

## 廿二日光州法院에서

【光州】소화칠년시월에 전남경찰부의 지휘을바다 소관려수서(麗水署)원에게 검거를 당한이래 만사년만에 공판개정케되는조선공산당전남동맹(朝共全南同盟)사건 정충조(鄭忠朝)(二七)등십삼명에대한 치안유지법위반의 공판은 이십이일오후한시 삼십분에안전(安田)재판장주심 홍(洪)전중(田中)양배석판사 이등(伊藤)검사립회하에 개정하엿는바피고일동은 대개건강한몸으로 창백하엇굴에 미소를띄며 방청석을향하야 목례를하며 착석한후안전재판장은 판에박인듯이 피고일동의 주소성명을 일일이 심리로조사한후 사실심리에 드러가려할때 피고 리창하(李昌夏)(二三)로부터요구조건이잇다고하야 신성한법정에서 허리통매고 쇠통을차고잇는것은불러 주기를 바란다하매재판장은 허락을하야 피고일동의허리에 매엇든쇠통을 끌러주고피고 김용환(金龍煥)(三〇)부터심리는 시작하얏는대 당일 출정한피고는다음과갓다。

出廷被告

▲鄭忠朝(二七) ▲金龍煥(三〇) ▲呂運鐵(二七) ▲張平元(二七) ▲金朴來永(二八) ▲申[illegible](三四) ▲李永均(二七) ▲金仁植(二七) ▲文昌洙(二三) ▲朱元錫(二三) ▲金[illegible]鎬(二三) ▲金石鋼(二三) ▲李昌熙(二三)

# "송장고개"의 石築이崩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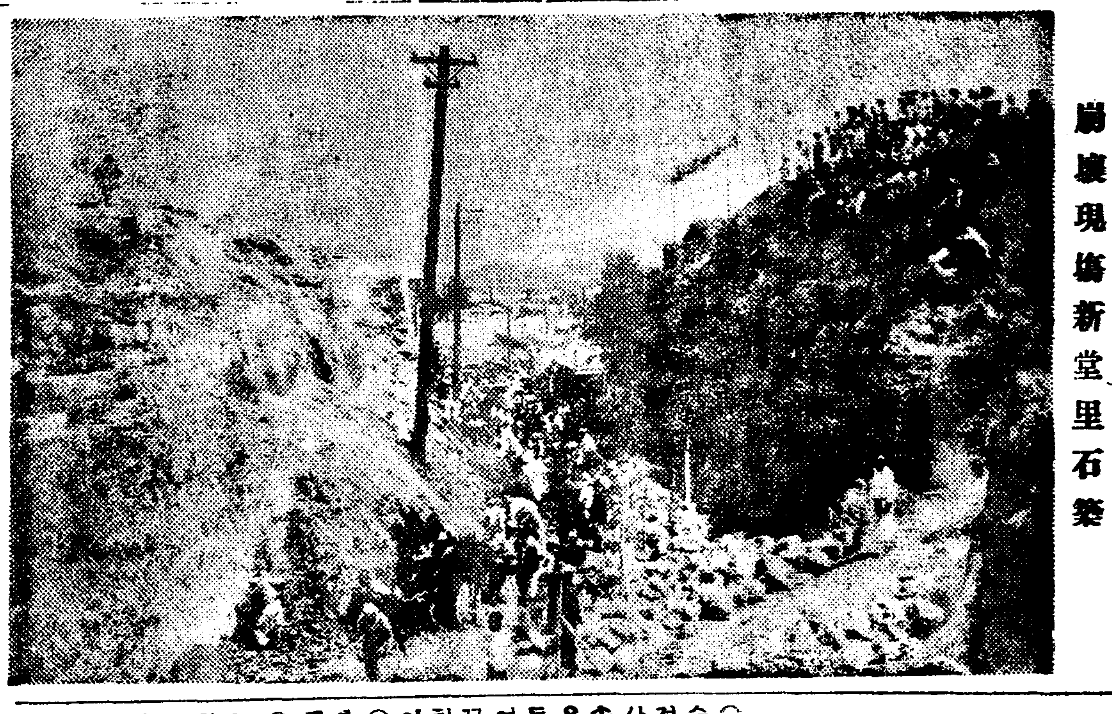
## 通行人一名이 負傷

## 生埋者有無는아즉不明

작이나되는 언덕우에다 주택지를 경영하노라고 시내 밀운정(密雲町)백사십삼번지 류정근(柳正根)(二四)씨가 석당을 쌓코잇던바 공사가 인부구월이엿다고하는데 이돌담이 이십삼일 아츰 여덟시경에 큰소리와함께 별안간문허지기시작하는것을 그앞길을자전거로지나가든 시내도화정(桃花町)사백오십팔번지 한종희(韓鍾熙)(二九)씨가알고 곳자전거를 내려뛰어하려가든 녀자와그가다려고잇든두어린아해를 반대편으로 미러노아무사하게하고 피하는바람에 떠러지는 돌에외편다리를 마저부근에잇든 상호병원(上好病院)에입원하엿다하며 목격자의말에의하면 마침그때에 녀자와함께어린아해가 그길을통행하는것을보앗다하니 과연그안에 파무처잇는지 부근에모여든 수백관중은 공포에싸여한발도 움지기지안코 한갑의 효과한개의돌에도주시의시선을 집중하고잇스며부근에잇는이천공보(仁川公普)를 비롯하야 배광학원(培光學院)신명학원(新明學院)에다니는 아동들이아충저녁으로 만히통행하는 큰길이라 마일이것이 사실문마일즉히 문허젓다면 수십명사상자를 내엿스리라고하며 부근주민은 이와가티공포선당을 불완전하게 싸흔데대하야 비난의소리가놉다고한다

경성에도 수천명사람이 통행하는 큰길가에 놉히 이십여척이나되는 돌로쌋은 언덕이 문허져 부상자를내이고 그속에사람이들어잇는지 업는지가 아즉판명되지못하야 부근주민의 공포감(恐怖感)을 자아내고잇는 사건이 이십삼일아츰 대경성안에서 발생하엿다 광희문밖(光熙門外)에잇는 전신당리 화장장터(所謂新堂里火葬場)로넘어가는 속칭(송장고개)라고하는 시내신당정(新堂町)사백구십삼번지 길여페 놉히이십여

崩壞現場新堂里石築



# 最高一年半役

## 二十萬圓 金塊密輸事件求刑

작년봄부터 금년이월까지사이에(滿洲國)과국경지대를 통하야 대규모의 금괴밀수를 하야 가격 이십만원어치를 만주국으로 밀수출한국제금괴밀수단의 이십일명에대한 외국위체관리법위반(外國爲替管理法違反)사건은 경성지방법원에서 공판을 열게되어 피고들의 변호사(辯護士)의 변론이 끗난후 검사로부터 다음과가티 구형이 잇섯다

(一) 外國爲替管理法違反被告 ▲金[illegible](三七) ▲盧[illegible](三七) ▲秋[illegible](三二) ▲林奇[illegible](三二) ▲[illegible]明(三二) ▲金容九(三七)(以上六名懲役各一年六月) ▲任[illegible](三二) 懲役十月 ▲李良根(三〇) ▲[illegible](三二) 懲役八月

(二) [illegible]法違反被告 ▲李[illegible](三二) ▲李[illegible](三二) ▲[illegible] 上二名懲役各一年) ▲金[illegible](三二) 懲役八月

# 有吉公使狙擊事件連累者

# 韓道源等四名押來

## 廿三日平安丸으로仁川에到着

【仁川支局電話】수년전 중국상해(上海)에서 당시의 유길공사(有吉公使)를 저격한 련루자로서 그동안 몸을 피하여 잇든 평남출생 한도원(韓道源)(三一) 평양(平壤)출생 김승은(金承恩)(三一) 경성출생 김창근(金昌根)(二四) 황해도출생 오면식(吳冕植)(二四)등 네명은 얼마전에 상해일본령사관경찰서에 붓잡혓든바 이십삼일 아츰여덟시 평안환(平安丸)으로 인천에 드려온후 조선에 호송되여왓다

차부 제이천칠호 류현동(柳赫東)(二六)운전자동차에 송현리(松峴里)칠십구번지 진학선(陳鶴善)이 치어 즉시 영락정(永樂町)본전(本田)병원에 입원, 응급치료중이라는데 한더철은 약상(?)으로 중상이라 한다。

원인은 안전지대에 서잇든 전차가 지나가자 곳 길을 횡단하려다가 그만 전차뒤로 달려오는 자동차를 보지못하고 그만 그와가티 치인것이라 한다。

# 安全地帶에서 兩少年이 轢傷

## 電車發車直後에橫斷타가

이십이일 오후 다섯시쯤되여 황금정(黃金町)삼정목 일백이십이번지앞 안전지대에서 창신정(昌信町)일백사십이번지 조일(趙一)택시-운전수 로순성(盧順成)(二三)이 운전하고가든 경(京)구천오십칠호에 본정(本町)사정목 일백이십칠번지 연명근(延明根)의 집에잇는 한덕철(韓德哲)(一六)과 리일봉(李日奉)(一六)이가

# 五歲兒轢傷

【仁川】지난 이십일오후이시경 제일공립보통학교압을통행하고잇든 인천자동

水王產婦人科 院長 李麟[illegible]

# 競賣의悲運에빠진

# 尤庵書院華陽洞

## 二千圓債務로法廷서敗訴코

## 可憐! 名門의末路

【京城】리조(李朝)에잇서 인조(仁祖) 효종(孝宗) 현종(顯宗) 숙종(肅宗)사조를 통하야 좌의정 대신을 지내고 조정에 당쟁사(黨爭史)상에 거대한 존재인 송우암(宋尤庵)의 서원이 잇는 유명한 화양동(華陽洞)이 자손들의 빈곤으로 말미암아 신여건 소송의 보람 업시 끗끗내 오는 이십칠일에 경매처분을 당하고 말게되엿다한다 이화양동은 충북괴산군 청천면(忠北槐山郡靑川面)에잇는 세칭 송우암 화양동 팔경이 이곳 이라고 부르는 명승지로 송면청은 일천사백십삼원 (町)보라한다 그러데 이소유자는 우암의 종손인 충북괴산군 청천면청천리(忠北槐山郡靑川面靑川里)칠십삼번지의송철호(宋哲鎬)씨로 방금경매처분을당한 원인은 다음과 갓다한다 전과송철호씨는 대정 십삼년에 고양군 한지면서빙고리(高陽郡漢芝面西氷庫里)(現京城府西氷庫町)일백이십구번지 천순거(千順巨)씨에게 천원이천원을 꾸어쓴것을 그후 한안에 반환하지아니하야 전 그 천순거씨가 원고가되여 소화팔년에 경성지방법원에다 소송을 제긔하엿는데 동년시월삼일송을 나리엿스나 피고 송철호씨는 종내반환하지 안으므로 원고는 다시지난 삼월에 소송(小松)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원금이천원과 또한 대정십삼년시월십삼일로부터 금년 삼월십이일까지 리자사천칠십원 총합계륙천팔십원을 반제하라고서 전긔토지의 강제경매신입을 청주법원지청에 다 제긔한것이라 한다 이리하야

宋尤庵像

# 實物은寺院樓閣等

# 古蹟엔獨立門等其他

## —保存令에依하야새로指定된것—

조선보물 고적 명승 천연긔념물 보존령에의하야 보물로 심사사건, 고적으로결정된 천연물로 세건이 새로지정되어 이상의동부관보로 발포되엿다 의하면 보물은 사원(寺院)루각(樓閣)등건물로주로 과라서합동이고 고적에는 경성서대문 독립문(獨立門)등이잇는 하고잇는 근대조선의 력사를 하야 상고로 올라가서는 전주백변전 백제(百濟)시대의정마산성(靑馬山城)이잇는 충남부여군 부여면홍산리 (扶餘郡扶餘面)

관(太古寺)동 좌의(住)송광리(松廣里)송광사(松廣寺)의 [illegible] 국사전(國師殿)관음전(觀音殿)고려(高麗)로 [illegible] 현국사(女眞) 의고지이북청 정혜로선(靑海土城)이잇는북청군청해면토성리(北靑郡靑海面土城里)일대 [illegible] 잇은 부산부범일정(釜山府凡一町)산(山)일대 [illegible] 부산일정 군내서면 산호리 (昌原郡內西面山湖里)일대 [illegible] 통산리(平昌郡[illegible]東山里)

오대산사고(五臺山史庫)등이다 보물과 천연긔념물은 다음과갓다

▲寶物、京城文廟、京城東廟、忠南[illegible]山修德寺大雄殿、忠南[illegible]山[illegible]心寺大雄殿、全南[illegible]寺大雄殿、平北定州[illegible]寺大雄殿、[illegible]陽[illegible]南樓、安州百祥樓、安邊[illegible]樓、咸川東明館、海印寺藏經板庫等▲天然記念物、濟州島大[illegible]息地、莞島郡珠島의 常綠樹林 南海郡의 [illegible]里 常綠樹林。

# 天氣豫報

[illegible] 오는어시 [illegible] [illegible] 동반외에서는 [illegible]쳐의 [illegible] 차겟다는데 [illegible]어 이유서 [illegible]를 손에 [illegible]고잇다한다。

槪況 七五四粍의 低氣壓은 北滿으로 東行하고잇고 朝鮮海峽北部와 本州中部의南部에는 약한 低氣壓이잇다 高氣壓은 北中國에 七六〇粍、오호쓰크해에 七六八粍、南洋上에 七六二粍를 보이고잇다

豫報 [illegible]는 개이고 [illegible]는 흐리다 동경만에는 雷雨에비 가나리고잇다

| | 최고 | 최저 |
|---|---|---|
| 昨日 | 二一、四 | 一〇、七 |
| 今朝 | | 一〇、七 |
| 今日正午 | | 一八、九 |

# 運動競技

## 第四回全朝鮮女子卓球開幕

朝鮮女子體育獎勵會主催의 第四回全朝鮮女子卓球大會는 二十三日午後一時부터 京城中央基督敎靑年會館에서 參加選手五十名에 入場이 잇슨後 會長金活蘭氏의 開會辭와 昨年度優勝者 同德女高의 姜彰玉孃의 優勝盃返還及宣誓文朗讀이 잇슨後 ABC의三部에 나누어 競技의 幕은 열리바 當日夕刊마감까지의 各者戰績은 다음과갓다

◇第一回戰

姜彰玉(同德)2…0金泰蘭(京保)
陳玉出(梨專)2…0宋貴賢(同德)
趙[illegible](梨保)2…0林炳淳(京保)
車德蓮(同進)2…0廉金煥(世看)
張京熙(世看)2…0申奉元(京保)
李愛英(同進)2…0金福女(梨保)
宋金珠(世看)2…0金惠蘭(中保)
李孝根(同德)2…0金華蘭(中保)
王順[illegible](正義)2…1姜鳳姬(同德)
金七洙(正義)2…0李[illegible]順(同德)
李[illegible](梨專)2…1許完順(同德)
朴任香(京保)2…0郭忠愛(世看)
李松任(世看)2…1郭孝[illegible](梨保)
李元淑(梨專)2…0洪福点(中保)
金慈瑛(梨專)2…1李玉順(同德)
崔良[illegible](同德)2…0李慶淑(梨保)
全寶石(梨保)2…0金[illegible](中保)
金順女(京保)2…1李[illegible](同德)

◇第二回戰

[illegible](中保)2…0鄭[illegible](同德)

# 大邱西門市場에 殺傷慘變

## 메누리때문에사돈간싸홈

## 加害者는魚物行商

【大邱支局電話】이십이일밤아홉시 당지서문시장(西門市場)에서 는칼로두사람을찔러 한사람은즉사하고 한사람은 중상을당하야 생명이 위독한참변이 일어낫다 가해자는 부외내당동(府外內唐洞)에서 어물행상하는 김우선(金右先)(?)이오 피해자는 부외성북면검단리(城北面檢丹里)에사는 피영숙(皮永淑)(?)과 한동리에 사는그의사촌 량우(良[illegible])(?)로 서전긔사촌형은 그자리에서 즉사하고 동생은 부근동산병원(東山病院)에서 응급치료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참극의 원인은 전과 가해자의 맛아들 용수(龍守)(?)와 즉사한 피영숙의 맛딸 점순(點順)(?)이와는 수년전에 결혼하야 부부생활을 하여오다가 점순이는 얼마전에 친정으로 가버린채로 도라오지안흠으로 시아버지되는 가해자는 피해자가 그딸을다른데로 팔어먹으려고 꾀인것이라고 오해하고 전긔장소에서맛나 왈시왈비를 하다가 드듸여 흥분과 분로의감정을 참극을연출한것이라하며 가해자는 지금소관 대구서(大邱署)에서 엄중취조중이다

# 밤만한雨雹

## 義城比安面一帶에나려

## 農作物은全滅狀態

【安東支局電話】경북 의성군 비안면(比安面)일대에는 이십이일 오후다섯시반쯤부터 밤톨만한 우박이 약이십분동안 퍼부어 이로말미암아 일반농작물은물론 보리와 벼못은 전멸상태라한다

山下テント 釜山大倉町 電話三四四番 カタログ進呈

朝鮮警文界の新照明 先づ既往の問題を偵察せよ!!!! 最近朝鮮警察問題 ◇定價金八十錢 送料書留十六錢 昭和十二年版 附警部考試試驗問題(十年間) ○昭和元年より 昭和十年まで○ 全科目問題及試驗規則 志願者手續、必携及 精選好評受驗參考書 發兌 朝鮮受驗研究社 京城府永樂町一ノ七九 振替京城一〇九〇番 朝鮮官界の登龍門 普文試驗期日八月七日ヨリ京城中學校ニ於テ施行ト決定

림질 네오치리ン 可恐할害毒을流布식히는淋疾。消渴의療法으로서茲에武藤、宇佐美兩醫學博士推獎의最新藥 ネオチリン의服用을推獎한다。本劑는當所研究部가加藤藥學博士와共히幾多의實驗을거듭한苦心研究의結果完成된것으로써殺菌力이가장强하고急性慢性惡性은勿論、膿、痛症도解消된다(療法書進呈) 京城本町四ノ一二六 株式會社 木村藥房 一圓、二圓、五圓、十圓 兵庫縣細川、電話河番 株式會社 山本製藥所 全國藥店百貨店에잇숨

廣告 昭和十一年五月二十日發行基督申報第一〇八六號中 福音[illegible]社 [illegible]本人等의承認업시 本人等의名義로 [illegible]하엿슴으로 [illegible]하는 [illegible]에 [illegible] 昭和十一年五月二十三日 [illegible]

山羊 [illegible]

恩給 五年分以上最低利長期立替進償 借換歡迎乞照會 京城中學町一七 女師前 金星商會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는이러한職業으로理想의就職 女子는[illegible]、男女小資本으로[illegible]、年中無休 [illegible] 說明書及見本無代進呈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福榮本舖

新發賣 ¥55. 第二一四號 淸新한外裝 豊麗한音質 참으로굉장한 포ー타풀의 新發賣입니다 近處의特約店에서試聽하시라 コロムビア蓄音器 日本蓄音器商會

淋疾 蔘茸五淋錠 淋疾은[illegible]、慢性과[illegible]、淋疾이[illegible]할뿐만아니라[illegible] 本劑는 [illegible] 定價一圓 三圓七十錢 朝鮮靈藥研究所 咸興府大和町三丁目 振替京城二三四六番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朝鮮信託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九番地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 (營業案內進呈)

肺病 只今은肺病이만히發生할때라고、또는肺病의症狀이惡化되는때이다此時期를當하야、本院에서、特히釜山에잇는肺患者에限하야、完全健康體를恢復할때까지 外上으로 特效藥「[illegible]」을드리나이다[illegible]健康體를恢復치못할時는藥價는不要하오니 一次試服하시옵[illegible] 하시요(藥書無料) 釜山府草梁町 回春藥院

漁具 釣具 [illegible] 五分目 [illegible]金八圓也 四分目 [illegible]金十圓也 [illegible] 三[illegible]金三圓也 定價表進呈 京城明治町一丁目 秋岡商會 電話本(2)四三九〇 振替京城二一一五六

단三圓半에 라듸오를산다 ▽거짓말가튼安價로絕對優秀品 特許鑛石라듸오新發賣全國的大宣傳 附屬品全部具備三圓五十錢에特賣 (特許テ一ウエセト)은참으로理想的鑛石라듸오로二重放送까지完全히分離가되고、感度優大하야從來에가장鑛石세트가困難하든遠距離의放送을完全히聽取되는「テ一우엔세트」만이가지고잇는最大의자랑거리다 第一便利한것은電燈이 이안의나代用이되므로 電燈이업는地方에서나、또는停電될때에 도聽할수잇다。 送料內地三十錢▽代金引替는葉書로申込次第四圓에送呈 體裁 縱橫高サ 一寸六分 二寸七分 三寸七分 (特許에依한本器의七大特長) 一、遠距離에서도聽取되는 二、二重放送完全히分離되는 三、小形이나性能優秀 四、使用法가장簡單積過堅牢 五、放送局에서相當한距離까지는 六、아ー스不用코도聽取可能 七、수도、세트、部分品全部特許品 受信感度大十哩까지可能하다 注意送金은振替又는小爲替로 海外는送料前金 發賣元 東京·麴町·九段三ノ一 振替東京八四四四二番 東洋電氣工業社 代引共廿錢增

常る廿三日公開 大[illegible] 每日[illegible]三回興行(午前十一時四十分ヨリ) 新興キネマ超特作現代劇 原作 久米正雄 監督 鈴木重吉 入江たか子 主演 麗春紅 オール、トーキー かりそめのくちべに ハロルド・ロイド主演 ロイドの牛乳屋 オール・サウンド版 關訂仁義 杉山昌三九、森靜子、久松美津枝 主演 新興キネマ時代劇超特作 永樂町 中央館

五月二十一日부터 晝夜二回 東洋劇場專屬劇團 喜劇座大公演 金泉希、石[illegible]、孫一平、金元浩、金鎭一、許末鳳、金小鳥、李貞[illegible] 이제喜劇의[illegible] 悲劇 女軍太平記 一幕 喜劇 名判官 一幕 人情悲劇 어데로갈거나 一幕 西大門町 東洋劇場

廿日ヨリ超豪華封切特別大興行 今週の番組 ▲東日・大每國際ニュース ▲パラマウント映畫超特作日本版 巨匠レオ・マッケリ監督作品 ハロルド・ロイド大熱演アドルフマンジュ、ヘレンマック助演 喜劇王ロイド一世一代の大傑作 ロイドの牛乳屋 名匠成瀨巳喜男監督作品 月形龍之介主演細川ちか子、千葉早智子助演 桃中軒雲右衛門 若草映畫劇場 電話本五一一五〇番

五月廿一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午後一時、四時半、六時半 ◆特別大興行 ◆佛國S.N.C社最高傑作映畫 純白한處女地 갈멘狂想曲 百萬兩의壺 團成社

百補丸一萬人限一割式

僞造百補丸을注意하시요
百補丸은平和堂外에絶對無함

# 代金全額後拂

**藥效가 廣告와 다르면 代金을 送金치 마시요**

**藥先送 服藥後 代金支拂**

## 不老長壽·強精回春·更少年補藥

●百補丸은東西洋補藥中 最極上 第一完全 絶對特上 效力신기합니다

氣力이 活潑하여지고 무○가 完全히낫고 精髓이 든든하여지고 체증이 업서지고 腎氣不足이니 腎水不足이니 하는생각은 夢中에도 하지아니 하게되며 補全身 百補하야 生理的으로 精神的으로 完全히 更少年이 되고 不老長壽케되니 이에서 더조흔補藥이 어데잇습니까 더욱이 嘗分間 藥先送하고 代金全額後拂條件으로 販賣하오니 이藥效를 疑心할餘地가 秋毫만치도 업슬것입니다 只今곳注文하시요

### 人生에急大問題

草木은 肥料를 주어야 茂盛하고 사람은 補藥을 먹어야 健康長壽

●나무가 마르려고할때에 肥料와 물을 주지아니하면그나무가 엇더케됩니까

●사람이性慾이줄고 氣力이업고 勇氣가 나지아니하는때에 조흔補藥을 아니쓰면 마르려는 나무에 물아니준것가치 悲慘하게됩니다

어런때 藥을아니쓰면 닭잡아격글것을 소잡아격게되며 당신의몸에큰일이 나게됩니다 이런때에 百補丸을使用하시면 모든虛弱症이 根本的으로回復되고 前以上健康하고 普通健康人보다 特別히 越等한 精力조흔사람이 됩니다 實로更少年百補하야 人體改造할수잇습니다

●性慾이 減退한사람 ●手足과下焦가 恒常濕冷한사람 ●消化不良한사람 ●恒常氣力이업고 ●活氣가적은사람은

早老할症狀이요長壽못할症狀이오니 一日速히第一完全하고第一조흔補藥百補丸을服用하시와更少年이되시요

朝鮮總督府 警察部檢查室 販賣許可濟

##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 百補丸

根本的回春壯陽強精·強筋強骨借力·一平生無病健康長壽劑

### 事實이第一

廣告면 다 廣告가아니고 藥이면 다 藥이아닙니다

廣告는事實을記載하여야 참된廣告이오 藥은效力이充分하여야可謂藥이라할것입니다

### 代金後拂 規定及趣志

百補丸의大特效를 天下사람에게 急速히알게하기爲하야 代金全額後拂條件으로 販賣합니다만은 試服後代金을 곳보내주실人士는 官吏層인지 私民層인지 富者인지 紳士인지 無産層인지 農民인지 商工人인지 알지못하겟습니다 그러타고 누구에게던지 다後拂條件으로 送藥할수는업는 形便인故로 全朝鮮道知事 全朝鮮郡守 全朝鮮面長 全朝鮮官公立學校長 全朝鮮金融組合理事 京城市內町總代 全朝鮮百石以上秋收하는 地主에게만 限하야 後拂注文에應하고 그他諸賢諸氏에게는 罪悚하고 未安하오나 商業上不得已한 事情이오니 失禮이오나 普通注文으로 해주시기를 伏望하옵나이다 後拂注文도 試服後代金을支拂하거나 藥이不合意하면 返藥하거나 할것이고 普通注文도代金을 先金又는引換代金으로 하고 萬一이라도 或藥이 貴意에不合하시면 返藥하시고全額返金請求를하시게 規定이되여잇사오니 後拂이나 先金이나 代金引換이나 服藥家의利害得失은 꼭갓습니다

### 後拂注文法

注文時에 먼저 後拂注文이라쓰고 藥代金十圓은 試服後 支拂할터이니 百補丸特製一劑보내시요 送費七十錢은郵票同送합니다 送費七十錢은 先金으로하오니 郵票로나振替나 爲替로 先送하여주시요 注文法은 貴氏名엽에官吏면 官名을 肩書하여주시고 富者면 地主라고肩書하시고 百石以上秋收하는地主면 地稅證明書를同封하여주시요

注文書에는必히捺印하여주시요

### 普通注文法

平和堂振替五番에送金하시거나 爲替로나先金十圓을보내주시던지 藥書로百補丸特製一劑代金引換으로送하라하시오

### 普通注文人께特典

普通注文人께는 送料도本社負擔하고 도本社苦心發見한事實標手續中인 九重宮闕에秘中秘로秘藏되여던 秘方藥超特強精補藥試用小一箱을 無料로添呈합니다 (期限當分間)

## ●代金全額後拂販賣를하니 藥效의偉大確實最極上은不問可知●

第一、第一、참第一、정말第一조흔 補藥인故로 藥先送하고 代金後拂約束으로 販賣하고 잇습니다

그런즉이藥의效力이 얼마나 確實한지는 諸氏도 不問可知일것이올시다

●이仙藥을 販賣開始한지 五個年以來에서 先服者不知其數인데 百人이면百人 千人이면千人 이다特效하다 神效하다 更生하엿다等稱讚아니하는 사람이업는故로 本社는 絶對自信을가지고 이仙藥이 天下에第一가는 補藥으로 確信하고잇습니다

●實로累試累驗한藥인故로 이러케自信을가지고 代金後拂效力保證게약까지합니다

### 百補丸의藥效는左와如히 참 굉장합니다

一、百補丸을 服用하면 爲先 手足과 下焦가 뜻가워 더워집니다

二、精力이 潮水가티 每日每日느러서 事務를 自然不知中 만히보게되며 深夜또는 徹夜하야 不眠努力하여도 翌朝에 無難히 早起하게됩니다

三、飮食을 自然히 만히 잡수시게되며 체증가튼것은 어느때 업서젓는지 알지도 못하게 업서집니다 口味도勿論조와집니다

四、一週日만連服하면 ○가튼 性○이 不知中○雄되며 連服하면 用之不竭 精液이 如泉하며 玉骨仙風 皮膚에 주름살이퍼지며 不老更少年이되며 ○○과○○두가지 人生最大의 欲望을充히 滿足하게되며 永久히 幸福한 身體의 所有者가 될것이올시다

五、遠山松葉跋을能히세월듯 百補丸을 服用하기始作한지 五日間만지나도 몸이漸次輕快하여지며 遠山의松葉跋을 能히 세월듯한 氣分이生합니다 이것은 特히 精氣粹氣가 充實補益된까닭이며 몸이輕하야지는것은 體重이減하여지는것이아니요 筋骨이 튼튼하여지는까닭입니다

六、體重이增加됨 服藥前과 服藥後 體重을 다라보시요

七、몸의健康은家庭의 衰退를回復하고○○의健康은 不和한家庭을和睦케한 몸의 健康 精神의健康 ○○의健康은 不和한家庭을 和睦케하며 衰退하여가는 家運 나는하여가는 國運도 必히挽回할수가 有합니다

身體가 虛弱하면 興旺한家運도 多煩한家勢에못이기여 敗家케됩니다 明賢히必要한것은 健康二字뿐입니다

奇哉●強度의動物ホルモン植物ホルモン多量含有

八、連日深夜 讀書視務하여도 翌朝에 無苦早起케됨 連日하야 每夜子正後一時 三時까지 研究視務 讀書하여도 조금도 疲勞 何等疲勞가 無히 早起케됨 是果然百補之緣由 藥效偉大之證

九、百補丸은 完全圓滿한補藥이됨 補藥中에는 或一部臟器만 補하는藥도 許多하야 或人無效하지만은 百補丸은 人體百部를 全部理想的으로 補身하는 靈藥이요 三十餘種 參貴한原料가 配合하야잇는 神人道師葛玄眞人의 救世的秘方藥입니다

十、腎氣가 大增進되야 ○○의回數가 不可避之數로 增加됨

十一、每日 公事 私事間 處理件數와 執務時間이 不識中自然延長됨 身體와 精神이 疲困하지아니하니가 自然히 研究와事務處理를 만히하게됩니다

十二、世上을 樂觀하며 亂暴가튼 事件도 能히容易하게 處理하게됩니다 大端히 不平한일과 성가신일을 當하여도 마음과 머리에화가나지아니하고 完全히무슨일이든지 判斷됨으로 世上에悲觀할바업고 무슨일이던지 樂觀됩니다

十三、血色이 조와지며 얼골에주름살이 퍼지며 젊머지며 玉骨仙風이됩니다

十四、힘이생깁니다

十五、사람이침착하고점지안어집니다 ●神經衰弱가튼것은멀리멀이갑니다

十六、長久連服하면 久淋도消滅됨○○後疲勞不愛은 참신기기묘可驚其效

十七、淋疾根治後는 同陽키爲하야 必히 百補丸을 服用하여야합니다

●健康한身體라야 世上에서 살滋味도잇고 健康한子孫을 得합니다

●百補丸은 絶對的 一時的 效果를 내는藥이아니고 道師神人 葛玄眞人의 秘方藥입니다

葛玄眞人은 漢學者들은 다잘아시는 道師입니다 代金特價 一劑拾圓·重用二十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周旋하시면周旋人게一劑無料進呈

## ●修身齊家治國平天下도爲始健康

效力絶大한……補藥을長服하면、不老는勿論……事業成功도百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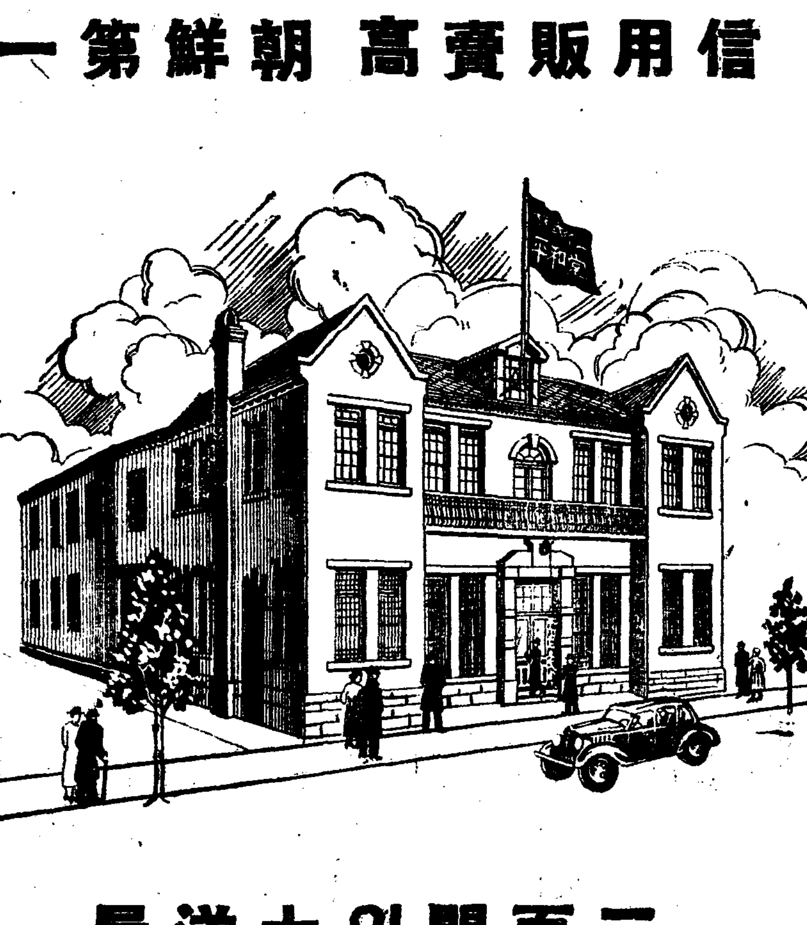
#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京城府堅志町(五·六)(前中央日報社跡)振替京城五番·電話光化門六三二一番

## 信用販賣高 朝鮮第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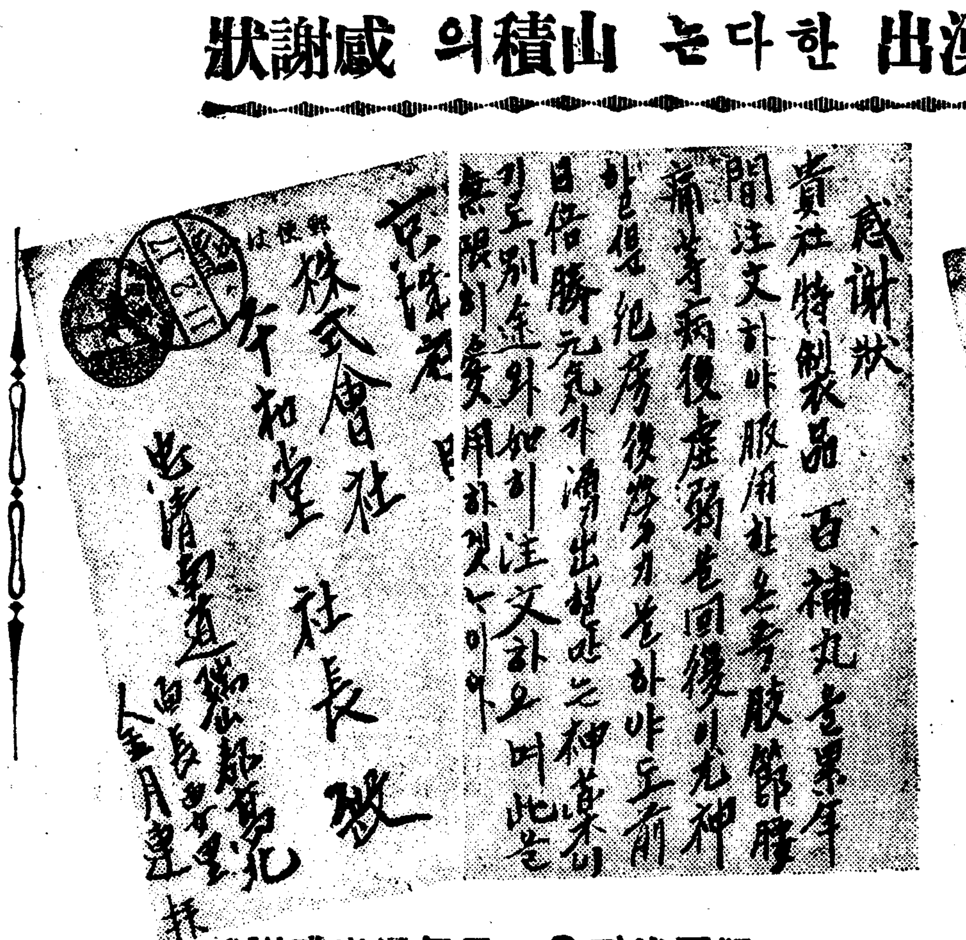
販賣特約

地方의 特別히 信用確實한 病院이나 醫生이나 特別히 信用確實한漢藥局이나 洋藥局에特約販賣를許함(有特別有利하신條件)(一年後라도賣價로返還함)特別히 實効確實한 藥인故로 醫師나醫生에게 特約販賣를目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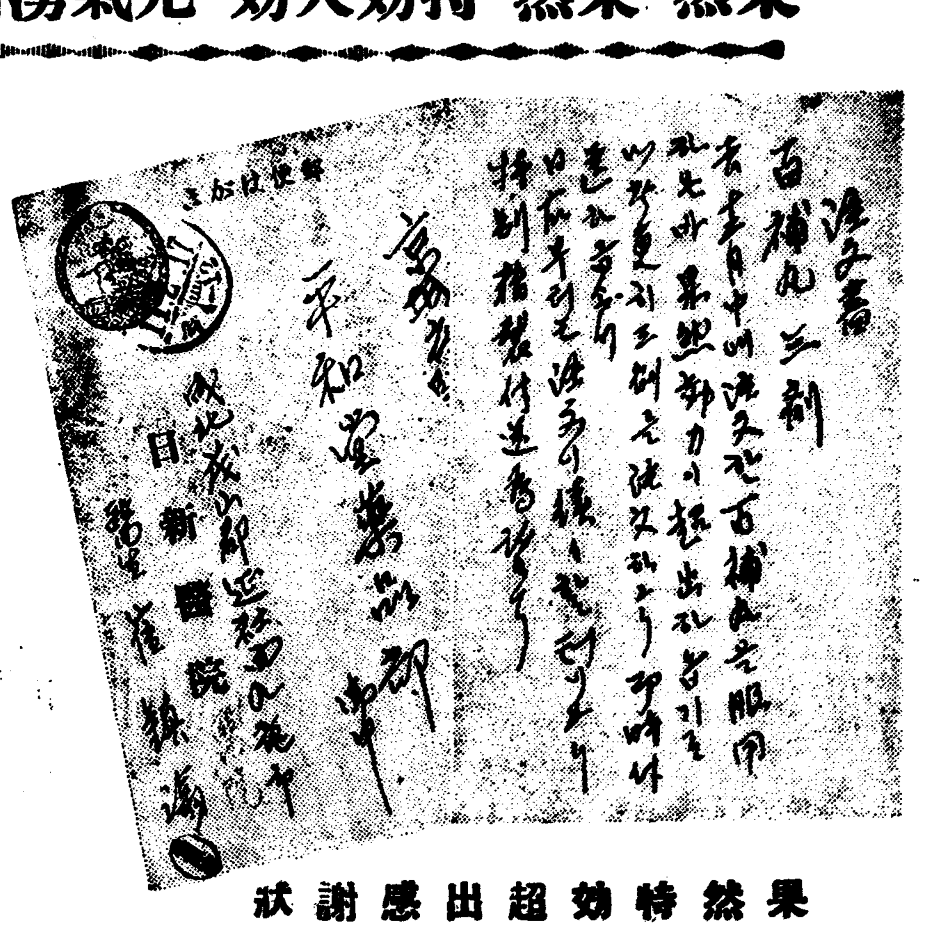



三百間의大洋屋

## 果然 果然 特效大效 元氣湧出 한다는 山積의 感謝狀




犯房後더욱 元氣湧出感謝狀




果然特效超出感謝狀

事實로 조혼 補藥은 大衆이 眞正한 感謝를밧는다

# 이…이…이… 분세수하실때에 여권왜빼놋나요?

## 예순가지나 넘는 이의 빗갈 누른이엔「베니」가 망발

이스빗은 얼는 보기에 누구나 근사근사하거니 생각하지만은 실상 그러치 안습니다。 흰빗、젓빗、누른빗、노란빗、재스빗등 세밀히 다지어 볼때는 약 십여종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는 어떤 빗갈인가 그것을 몬저 분간해 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화장도 달러저야만 됩니다。 위선 누른 쪽에 대한 화장(化粧)도 하여야 하거니와 얼굴을 가지신분이 베니를 만히칠하거나 흰 분을 발라서는 지저분만 스럽워 보일 것입니다。 차라리 살빗분을 슬쩍 발라 두는 것만 바이 갓지 못 합니다。 그반대로 하얀이는 흰 분에 베니에 다 칠해도 무방합니다。 아니 그러케 함싸롬 반숙가른 이가 더 고와 보일는지모릅니다。

×

이를 화장하자면 무엇보다도 희게 하는 것입니다。 남양등지에서는 일부러 검게 되는 약을 칠하야 까마케 화장하는 데도 잇다고 하나 물론 그런 것은 딴문제입니다。 그런데、본래 누르거나 검으레한 이를 히게 하기는 퍽 곤란한 노릇이올시다。 히염산(稀鹽酸)을 가지고 이를 히게 하는것은 한때 하얘지기는해도 곳 도로 제비치 되고 또 법랑질(琺瑯質)을 해치어 잇병이다 되기도쉬웁니다。 그보담은 자라리 두고두고 과산화수소(過酸化水素)나 레몬파 가튼 것을쓰는것이 조치 안할까고 생각 됩니다。 과산화수소물은 탈지면에다가 조금무치어서 이를 문지르고 레몬즙랑은 그쪽가 그대로 이에대고 꽉꽉 씻어 내는 것입니다

×

제일 나쁜 것은 이에똥이 안는 것입니다。 그 것은 사람조차 개질지 안코 추해 보입니다。 그러케 안되자면 식후에는 반듯이 양치질을 할 것 밤에 잘때도 반듯이 양치지를 하고 잘것 일년에 한번씩 치과의사에게 가서 이를 닥거 넘것등 멧가지의 조건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안식향산(安息香酸)五에 대하야 규조(珪藻)九五를 잘 석거서 치분을 맨들어서 그것으로 늘 이를 닥는 것도 좃습니다。 치분중에는 맷번 안닥거서 이똥이 죄 떨어지는 것도 잇스나 그런 치분에는 반듯이 손해가 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보담은 치과의사에게서 긔계로다가 이똥을 떨어버리는것이 도리어 손해가 적습니다。

×

부인네가 나드리를 나서실때는 얼굴도 보고또보고 옷맵시도 보고또보고 하시면서 이만은 한번도 드려다보시지를 안습니까? 그래서 가끔가끔 이사이에 붉은 고추가루 푸른나물이 끼어 잇스니 그 어찌 좋아선이 가 사나지 안켓습니까? 화장이 끗나거든 반듯이 이를 벌리어 보시시오。 그리고 빨깨하게 닥거 내시시오。 그런이 아니라 자기가 손을 말끔히 씻고서 손끄락끄로 아래우의 이스툴을 맛사지하는 것이 여간 조치 안습니다。 이도 하애질뿐 맛사지도 할겸 과산화수소를 희한 탈지면이나 레몬즙각으로 맛사지를 하는 것도 해롭지는 안습니다。 또는 백배의 중조수(重曹水)로 가끔가끔 양치질을 하는 것도 좃습니다。 과산화수소에다가 물을 삼배쯤 타서 그 것으로 양치질을 한대도 무방합니다。

×

이스솔은 적어도 한달에 한번쯤 갈아야 합니다。 한달쯤 지나면 위선 떠럽기도 하고 털이 부서저서 잘다기지를 안습니다。 그러고이 스솔은 쓰고 나서 반듯시 볕이 잘되는곳에다가 걸어 두엇다가 써야 합니다 그러치 안해서는 병균이부터서 입안으로 들어갈 우려가 더욱 만하됩니다。

나무자수

태고적에 우리조상이 나무우에서 살앗다면 이러케 햇슬까요? 이것은 써커스단의나무재주올씨다 원숭이도 혀를빼물도록 재주를 부립니다

# 童話 임금님의귀 (二)

崔秉和

「그것은 결코 어려운것이아니다。 지금곳 숲속에 드러가서 큰나무 밋둥이에다가 구녕을 뚤코 그구녕에다 대고 하고십흔 말을 한마디 하여랑。 즉 그나무에다가 말을넛코 봉하는것이 된다」

이말을드른 아들은 즉시 숩속에 드러가서 제일큰나무 밋둥이에다가 구녕을뚤코 그구녕에다가 입을대고 「임금님귀는 말귀!」 하고 큰소리로 말을 하엿습니다。 그러니깐 이상스럽게도 맛치 묵거운 짐이나 내려노흔것처럼 자기의몸이 갓든하야젓습니다。 아들은 「아모도 드른사람이 업겟지」 하고 깁버 뛰면서 집으로 도라왓습니다。 아들의 병이나섯슴으로 어머니는 퍽 깁버하얏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전과가티 일을하엿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리발사를 죽이지안코 돌려보낸뒤에 혹시 소문이나지나안흘가 하고 염려하엿지만 아모러한소식도 안들려오므로 마음을 노시엿습니다。 그리고 그후부터는 그리발사에게만 머리를 깍그시엿습니다。

그때 애란에는 크라프틴이라고하는 거문고잘툿는 명인(名人)이잇섯습니다。 어느때 임금님에게 무엇인지 축하할일이잇서서 큰술잔치를 베푸시엿습니다。 손님들은 대궐 넓은방안에 넘칠듯이 되엿습니다。 그때 임금님은 크라프틴을 불너서 거문고를 뜻게하시엿습니다。 크라프틴은 임금님의 명령을 바닷는데 공교롭게 지금까지 가지고잇든 거문고가 깨여젓습니다。

그래서 할야할야 새거문고를 만들지안흐면 안되게되엿습니다。 크라프틴은 숲속에드러가서 큰나무를찍나서 그것을베여 새거문고를 만들엇습니다。 그큰나무라는것은 외아들리발사가 「임금님귀는 말귀!」 하고 남몰래말을하고 봉해버린 나무이엿습니다。

크라프틴은 그거문고를가지고 대궐에들어갓습니다。 임금님은우선 고요한곡조로부터 자미잇는 곡조 다음에는 용감스러운곡을 타라고 명령하시엿습니다。

크라프틴은 명령을 바든대로 타는대 그음색(音色)이 조흔데 손님들을 비롯하야 손님들이 손벽을치면서 감심하고 크라프틴을 충찬하엿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또한곡조를 타라고 말하시엿습니다。 크라프틴은 즉시 새곡조를 탈나고하는데 별안간 하날이흐려지고 검은구름이 얏게내려와서 번개를 이 번적어리고 청둥이 우루루 하엿습니다。

하드니 돌과가튼것이 무서운소리를 내고 퍼부어 오는 모양이므로 일동은 몹시 놀냇습니다。 크라프틴도 손이떨려서 거문고를 내려노앗습니다。

그러니깐그때 더한층 놀나갯슴니다。 거문고가 저혼자서 울리엿습니다。 처음에는 무슨소리인지 몰낫지만 그소리가 점점 놉파저서 흡사히 사람의목소리와가티

「임금님귀는 말귀!」

「임금님귀는 말귀!」

하고 몃번이나 이러케 말하엿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은 이상한 말을하는 거문고를 다보겟다하고 기가막혀 뜻기만하는이 도 알까닭이업섯습니다。

임금님은 별안간 얼골이 새빨개지시면서 대단히 성을내시

「무례한말을하는 거문고다。 얼는 이망할거문고를 태버려라!」 하고 호령 호령하시엿습니다。 그리고 나종에는 벌떡 일어나서 머리를 흔드는까닭으로 그바람에 머리에쓰고계시든 왕관(王冠)이 떠러지자 그통에 말귀가 둘이 불쑥 빼처 올낫습니다。 이것을본 손님들은 깜작놀나서 「아 그러면 거문고가 말한대로 임금님의귀는 말귀다。 따는임금님의귀는 말귀다!」 하고 와하고 떠들고 우섯습니다。 그후부터 임금님의 지금까지의 권세는 아조업서저버리고

「임금님의귀는 말귀다!」

「임금님의귀는 말귀다!」

하고 원나라가 우습판이되엿습니다。 모다 이런것은 임금님이 자기의병신을 숨김나고 애매한 사람의 죄업는 백성을 만히죽인벌입니다。 (끗)

# 서양혼인풍속 약혼(約婚)반지 (一)

吳淑根

풍속은 그시대의 문화를조차 밧칩니다。 조선의 오늘날풍속이 얼마나 외국문화의 영향을 밧고잇는가를 볼때에 실로 놀라지아니할수 업습니다 고유(固有)한 우리의 풍속이나 습관이 날마다 신문화의 그늘밋에서 자최를 감초게되는것은 구태여 탄식할것은업다하더라도 적어도 그시대에맛는 엇더한 새풍속、새습관이 그때와 그민족의 향긔를 띄고 나온다면 그아니 반가우릿가마는 그런치못하고 남의것을 송도리째옴겨다가 흉내를내려드니 자연격(格)에도맛지아니하고 손에 서툴은까닭에 웃숩해야할 례식(禮式)까지도 한웃숩판이되고마는일이만습니다。 의식절차(儀式節次)에 들어서는 내나라 내집안에서서나려오는법도 례문가(禮文家)가아닌이상、잘못되기가쉽거든、우황남의나라것이겟슴니까。 여긔서 저는 우리미용계(美容界)와관계가 기픈 신식혼인—즉、양식(洋式)혼인에대해서 작간긔록하야 업계(業界)여러분께 참고가될가 합니다。

一、초현례(初見禮)

색씨의나하 만시집갈세가되면 부모가딸을사회에소개(紹介)하는뜻으로 친지(親知)와 우인(友人)을청해서 잔치를여는풍속인데、이것은물론 맛당한신랑감이 잇거든 중매를들어달라는 의미가 들어잇습니다。

이잔치를「떼뷰탠트」라고 합니다。 배우(俳優)가 처음으로 무대에 나오는것을「떼뷰ㅣ」라고하는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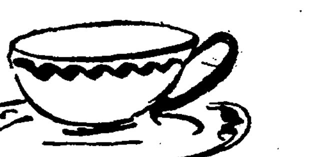
「떼뷰탠트」는 무도회(舞踏會)관극회(觀劇會) 오찬회(午餐會)만찬회(晩餐會)이런형식으로여는데 흔히는무도회가류행이요 장소(場所)는 자택(自宅)에서 정식(正式)무도회나 흔히는「호텔」에서「ㅣ·딴스」라고 다과(茶菓)후에무도회를엽니다。

고풍(古風)의상류가정이나 천주교도(天主敎徒)의 집안에서는 오후에자긔집으로 초대를 하는법이나 현대젊은녀자로서는 그리조하하지아니한답니다。

## 담과화병이잇소

問 금년 오십사세된남자인대 수년전부터 놀기침이심하고 백담이납니다 겨울에는 더욱심하며 좌우편갈비때밋과허리가결리며 몸이 출고 식욕이업습니다 작년시월경에 폐염을알코 그후부터 「야토코닌」주사를하얏는대 금년에도 진찰을한즉 의사말이 폐염의 원인은 아닌듯하다하며 담화라고칭하는병인대 주사치료를하얏스나 동정이업습니다 소화도잘안됩니다 당화가분명하니 잘생각하시고 주사약을가라처주시기바랍니다 월전에대변을검사하얏스나 충은업다합니다 (安城金男)

答 당화병이라고요 보통으로 그런병명을돗습니다 아마 당신병도 그런종류이겟습니다 주사약으로만은 낫기어렵고 내복약도필요할것습니다 여러가지중세로보면 폐가약한곳에는 내복약은 매일변통이되여야될것입니다 주사액으로도 여러가지 종류가잇스나 「칼숨」종류가 조흘듯하옵니다 또는 당신체질에하로 주사약도청할거신고로 한번 내과의사에게 다시진찰을바더보게하십시요 (普成病院 朴榮來)



# 短篇小說 灰色街 【十一】

李石薰 作 申哲秀 畵

최군은 자기의 고향집에나온것처럼 퍽으나 기뻐하엿다。 내가보기에도 뒷골목의 지저분한 여관의 쓸쓸함에 비하야 이곳에는 가정적인 평화로운 분위기가 잇섯다 방웃목구석에 창문을향하야 주인집에서 빌려준 훌륭한책상을노코 책과 호리비살림도구를모두 적당한자리에 정돈해노흔다음 예의 커다란 집신짝을 방한편벽에다 걸어노앗다。 그라고는 무슨 큰치례거리나되는듯이 물그럼히 바라보며

「학구 어떤가?」

어떤 행복감을 못이기겟는것처럼 나에게 뭇는다。

「그건 뭐라구 걸어놋는가 꺼끗한방이 추해지네」

「자넨 참말로 예술이란것을 모르는모양일세그려」

「예술이 무슨 어려운 예술…」

「예술이란것은 상식(常識)이 아닐세 설명할수업는것이 참말예술이지 이것두 비상식적이오 뭐라고 설명할수 업는데에 가치가 잇단말야」

나는최군이 일종 병적심리를 가진예술가라 생각하기도 하고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상도할수업는 뛰어난예술적감각을 가젓는지 몰은다고도생각하며 리론이 서투른나는 그의예술론(藝術論)을 가만히 귀기울이엇다。

한참 떠들며 저녁상이 들어왓다 첫맛이라기도 잇겟지만 도저히 살롱이라기보다는 촌내도 내지못할 진수성찬이엇다。

「애 이거 잡거든것 갓구나」

하고 최군이 통쾌하다는드시 크게웃엇다。 그것이 아마어까지 들릴것가 잇스므로

「쉬ㅅ 첫맛부터 불평을하지 키지말게 이렇게서 빼가는날」

하고일동 무한심으로 그를겸게하엿다。 사실 이런곳은 머리싸매고 일부러 구경하구 애를쓴대도 어렵을것가엇다。

저녁을먹고나서 우리는 좋호로 나와예로암물갓다。 최군이 오늘밤은 어쩐지 술을먹고 좋음흐고싶은 일종 유쾌한충동을 늣긴다하야 「예로암」에 잘오는 친구들을 「가모」로 불잡자는것이다。「회신아페서 야시에내노흔 사과를 한이십전어치 사서 내가들고 최군은마로 겻달어서「파이애플」하나를 사서들엇다。 사과한알에 십오전식바더내는 다방에대해서 시위운동을 하자하고 두사람은 유쾌하게 우섯다。 각각 과일을들고 들어가니까 과연 마담이 힐것보더니

「상당들허시군」

하고 낫을돌리며 미고소를짓는다。

「시위운동이오」

최군이 흉엉스리 말하엿다。

우리는 흉차롭시켜가지고 봐란드키 파일을까먹엇다。 먹으면서도 「가모」가 오지안나해서 연방 출입구로 시선을주며 오는손님마다 홀터보기를 게을리하지안헛다。

얼마잇노라니까 규칠이가 아주친해서들어왓다。 규칠이 이리오게——하고 최군이불럿다。 규칠이 우두머니서서 우리편을보다가

「학주 애기할게잇스니 잠깐오게」

하고 오지는안코 나를부른다

「여기와서 하게나내가방해가」

최군이 그러는것을 잠깐안저잇게 하고 규칠이쪽으로가서구석에 자리를 잡고마조안젓다。

메레의 약혼자가 오늘 식골서 올려와서 여기서 맛나기로 하엿다는것이엇다。 그래 규칠이의 유난히 칭울한리유는 알엇스나 무슨 충돌이나 일지안흐려나하는 근심으로

「맛나서 멀헌대?」

좋으니까

「나더러 메레를 유혹햇」니어쩌니하구 비난한다나까 대개 그런애길테지」

「그럼 여기선 재미어슬텐데」

「내야 정정당당한대 아무데면 어때…… 메레가 불상하단말야」

「혹 충돌이 생겨두 조찬흘거니가 우리들여기잇겟네」

하고 뒤는보아줄레니 조곰도 굴하지말라는 눈치를 보엿더니

「팬찬어 자네들은 다른데루가주게 충돌이 생길듯하면 장충단에가서 결투를하자겟네」

그라고는 구든결심의비츨 양미간에보이며 우섯다。 내일맛나 경과를 듯기로하고 나는 번등대는 최군을이끌어가지고 박그로나갓다。 규칠이의일이 자꾸 마음에 걸렷다。

우리집 압마당에는
나팔꼿이 만히낫서요
니피피고 덩쿨이버더
시원하게 그늘이들면
꼿방석을 펴오리다
할아버지안즈시라고요
「네도 녯날
한사람이 잇는데」
이야기도 하시고요

(공주사람 김 상 옥)

# 新綠漫筆

## 新綠賛

湖岩

떠들것 없는 사람이 新綠讚이 남것도 우서운 일이다。 봄날에 자가이 살면서 요사구라 구경 한번도 못한것이 역시 서운한 일이다。 그야 뭐 요사구라 구경을하려면 못할것도 아니지만 틈⋯이 업는것 보담도 마음이 업섯다。

사구라는 요새 햇세하는 꼴치다。 꼿이면 오늘꽃이 떠려나고 시들어 까지 볼래 구경하려 오는판이다。 금년봄엔 괴여히 한번 구경하려고 미리부터 별럿더니 그만 病에 붓들려 또못보고 말앗다。

「公園人의 新綠」이라고 울른 예사람은 꼿때 新드레 三春의 行樂하지 못한것을 新綠으로 삼앗다。 사구라 볼이 아니라 꼬송이 된 꼿이든지 美人가레서 누구나 사랑하지 않을이는 업듯것이다 그러나 나로서 숭거워서 말한다면 꼿도 물론 사랑스러우나 新綠이 더욱 사랑스럽다。 꼬즐 볼때는 언제나 마음이 어리우고 녁시 살아지는듯한느낌이생긴다 그러나 한번 새파한 新綠을 볼때는 눈이 산뜻 띄우고 精神이 새롭해지며 生命이깃봉을느끼게 된다 到底히 꼬체서는味得할수 업는 淸新의美、輕快의美를 오즉 新綠에서만 차즐수 잇다。

마한가지 宇宙의法則이 꼬츨 通해서 속사임과 新綠을 通해서 속사임이 어찌면은 이러케도 美人과 醜人의 差異가 잇슬가 서울서는 新綠의 名所로 南山과 奬忠壇이 잇다。 그러나 昌德宮과 昌慶苑의 新綠도 조타。 景福宮에는 [illegible]의 新綠이 특색이다 서울은 土色이 하얏케 되엿스므로 新綠이 갈별히 비치남을 보겟다。 土色이 하얏코 그우에 山水의美를 背景으로한 서울의 新綠은 어데가나 조타。 北岳도조코 仁王山도 조코 漢江岸도 조코 紫霞門도 조타。 新綠때의 서울이 꼿때의 서울보다 [illegible]

[illegible]가 조금이라도 減하는것은 아니다。 新綠때의 서울은 참으로 찬미하고 십다。 여기 사는 사람은 그릇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아지못한다。 우리는 自然美의 惠澤을 만히 바더건만 그것을 享樂할만한 餘裕를 타고나지 못한것이 遺憾이다。

# 存在學의 概念
## —形而上學批評試論—
### ① 金基錫

새로운立場

나는 現代의 思惟를 넓은意味의 希臘的思惟로본다。 오늘의 存在學이나 辨證法은그것이 希臘哲學의 地盤우에섯다는데서 그자신의어떤 限界를가진다。 西田哲學의 理解와 批判이 내자신의 思索의 오랜課題가되어왓다 이거은論稿는 西田哲學을읽으면서 특히 그『[illegible]』을 배우면서새여진 한개의 試論이다 이글속에서 나는 存在의 現實構造를 생각 해보면서 겸하야 내 자신의 西田哲學에 대한 理解의 程度를 보엿다 본대 難解라고 일러 지는 西田哲學이 내게잇서서 理解는커녕 도로혀 그로의非難을 밧고잇는지도모른다 그러나 西田哲學을 究竟에잇서서 헤-겔哲學의 한改裝으로보든나는 그것을 이世紀가가지는 한개의 巨大한 汎神論이라고부른다。 헤-겔의觀念辨證法을 絕對辨證法으로簡述다는 西田哲學속에서 우리들은 한개의 새로운論理의싹을본다。 이새로운論理는 限定의論理 場所의論理로불리진다。 이限定의論理、場所의論理에 잇서서 오늘의辨證法이深化되는것이아니라 辨證法 그自體가止揚되어버리고 現代의思惟가 한개의 전연 새로운論理를 길러나아가게되는것이아닐가。 이거은論稿를 機緣으로하야 이땅의 哲學徒들사이에잇서서 希臘哲學의終焉 및 그輓歌로서의 西田哲學이 좀더 眞摯하게論議되기를빌다

存在와그思惟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러간다。 사람은 무엇을 헤치면서 이르키면서 사러간다。 사람이 무엇을 헤치고이르킬때、그것이 ……單純……한「運動」으로 불려지지 안코「行爲」다「行動」이니로 불려지는것은 사람이 움직이는일속에 부단히 생각하는일을 가지기때문이다。

우리들은 이思惟라는것이 엇더케하야서 그리고 어느때부터 사람에게 주어진것인을모른다。 그러나 사람에게 思惟라는것이잇고 이思惟라는것이 人間을 人間으로 規定하는 빗나는性格의하나 임을 아니나 사람에게게 思惟가주어진것을 그대로 한개의 原本的인事實로보지안허서는안되다。

사람은 思惟를가진다。 이思惟는 어떤對象에 향한다。 사람의 思惟는 먼저 자기周圍에 잇는 것들에게 맛난다함을 생각하야 보고 물을생각하야보고 산과바다와 별과 하늘을생각하야 본다。 그러다가 이생각하고 잇는 主體가 人間임을알고 도라와人間을생각하야 보게되고 人間의 周圍에잇든것들과 대시 人間의 周圍에잇든것들을보고 개로 크게버러집어 언듬을보고 人間까지섞긴이廣大한 世界의 ……本源……을 가르는것을 생각하야 보는 자리에 드러선다 이리하야 사람은 자기도모르게 아득한存在의 世界속에드러잇는 한개의 조그만 『생각하는갈대』인 자기를發見한다

思惟란무엇인가。 存在란무엇인가。 思惟는 存在에향한다。 存在는 思惟에주어진다。 存在에향하지 안는思惟란 存在에대한 思惟는 아니다。 存在에대한 思惟가아닌 思惟가잇슬가。 無에대한 思惟를 생각하는이가 잇슬지도모른다。 그러나 存在를떠나 無를생각할 길이잇슬가。 無에대한思惟는 어데까지던지 存在속에서 외여지는 無에대한思惟 또는 無속에서 읽어지는 存在에대한 思惟가 아닐가。 思惟가 存在를 떠날때 思惟는 벌서 思惟가아니니 存在는 어데까지던지 思惟의地盤이요 根源이아니면안된다。

思惟는 存在에업매이고 存在에서흐르고 存在에도라온다。 思惟는 그자신 한개의存在인것과한가지로 人間에게 주어진 思惟그自體도 어느意味의存在가아닐가。 存在가 思惟를 나허놋든한에서 人間이 思惟를가진다는것은 人間이 思惟를가진다는데그치는것이아니고 한개의 새로운 그리고重大한 意味를가저온다。 우리들은

……人間……이 思惟를가진다고 보앗다。 그리고 思惟는 그대로思惟가아니고 存在에대한 思惟라고보앗다。 人間이 思惟를가지는것과아울러 人間이 存在속에 잇다는것을 意味한다。 人間이存在속에잇다。 人間의周圍에 만흔存在가 만흔모양으로 둘러잇다。 人間의思惟는 이만흔存在에향하고 이만흔存在는 人間의思惟를·불러이르킨다。 우리들은 여기서 存在가 人間의思惟의 素材한 그리고 久遠한課題임을아나니、哲學이 認識論에 압서 形而上學(存在論)에서 본대의領域을 차저내인것이 가장 맛당한 出發이라고 보지안허서는안된다。

漢詩募集

題、綠陰
押=裳
◇限五月末日
(薄謝進呈)

步步生香—(德壽宮牧丹)

# 美展概評 (一)
### 安碩柱

▲金景源氏 이분은 이번作品을보면 畵風을 박구워보라고한모양인데 成功치못한 늣김이잇다 物體의 面과面을 綜合하야 描寫하라고한모양인데 이라다가 그만 보는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듯하다 그리고 「柳陰」에잇서서 나무빗갈이 너무도 單調하면서 그나무들의 입새들의性質을 입혓기때문에 버듬갓지 안타 그리고 물에비최인 나무그림자가 그筆致의關係로 허절이 절히것갓고 물갓지안타。 그다음(夏園)에잇서서도 이런 늣김을 주는데 옛날作品보담은 이번은 失敗로 볼수밧게업다。 그러나 變遷過程에잇서서 作者가얼마나 새것을나코자 苦悶하엿는가는 뚜렷이드러난다 나는 傑作보담도 이點을 取하고십다

▲朴來鉉氏 이분의作品「荷運」은 平凡한題材는아니나 너무도 웅아집에만 眞實하엿기때문에 사람이 눌리엿다 더구나 집친사람의 허리가 죽어드러가서 꼿사람이 웅아에게 壓死될것가튼 戰慄을준다 繪畵藝術은 曲藝의 奇術이아니기때문에 그런戰慄은 作者에게로 돌려가고말것이다 그러나 이분이웅아집을 題材로한데는 아프로 좋을한 將來를 가저오기위한 첫試驗일것이다

▲鄭[illegible]氏 이분의作品「秋郊」는 힘드린듯스나 畵面이統一이못된그림이다

그리고 東洋畵部에서 安[illegible]氏의그림을 그대로 지내칠수가업다 繪畵藝術은 그린다는것만이아니다 어떠케그려야 할가에잇다 어떠한것을 그려야할가 이作品에서 조그만 特長이나마 차저볼수잇슴을 東洋畵部諸氏에게 말해둔다

▲李[illegible]氏의「雪中[illegible]」은 나는 雪中에 조는 [illegible]를 보아 實感이잇는가는모르나 氣魄이라는것을畵面에서도차즐수잇다는것을말하고십다

▲金明河氏의「學園의初夏」는 고흔便이다 그러나 畵題가 그냥「初夏」라고 햇드면 오히려그 作品을 優待하고 시펏는지모른다 거기에 어느구석에 學園과關聯시킨 氣分만이라도잇는가 氏는勿論어느追憶에서 붓을드럿는지모르나 繪畵는 音樂의諧裝와는다른줄안다

▲鄭[illegible]氏 이분의作品은 映畵의「스틸」가튼늣김이잇다 人物의 悲劇的인表情은 繪畵에잇서서는 어느『로-맨스』를 表現하는것이아닐진대 繪畵的인表情이 다르리라고하겟다 이것은 洗練되지안흔때의 恒容잇슬수잇는 通例일것이다

▲李用雨氏 이분은 이번作品에서 그리크게 어든것이업슴을 섭섭이생각한다 氏의作品에서는 才氣澎湃한 缺陷이 잇슬때 才氣를 지내친 氏의作品에서는 또 가 만흔것을본다 達筆은 주저하는때가 업기때문에 더무 그 [illegible]를 滑走하야 失敗를 가저오는때가 잇슴을 늣기게한다

▲李象範氏 이분은 美展의[illegible]의神가치되엿다 어느때는 傑作도잇다 그러나 氏는 製作의 限界를 맨드러논드키 어느때나 그嶺을 넘으라는 意慾이 업시 너무도 自己의 못고줄 抑壓하는 늣김이잇다 이번「霜寒」은 作者自身도 滿足치안흘것이다 于先『한울』을 보라 그 옛옷을 벗지못한 筆致를 보라 氏는이제쭘은悲壯한 決心과 勇躍이 잇지안흐면 그苦心하야 싸흔 地盤을빼앗길 憂慮가 업지 안타 氏도 생각이잇스리라

# 乙支公詣墓行 (四)
### 李相昊

『將軍이 가신지 千三百餘年이땅은 곰직이도 變하엿습니다。 將軍이가신지 百年도못되여 손수마련해주신 그版圖는 白頭山南麓으로 쫏기여왓습니다。 大高句麗의 强盛은 꿈자최처럼 살아젓습니다。 將軍의힘으로 오르지어든 이겨레의 赫赫한 名譽는 떼어러진지 이미오래엽니다。 强、勇、毅、悍、等의形容은 이겨레와 因緣이 머러진지 옛날입니다。 이民族은 버릇가지가리고 [illegible] 배가업는 民族이 되여버렷습니다。 [illegible]、唐나라와 뻐를 맛부처 [illegible]

將軍의것도 將軍이 瞑目하신後 얼마안되여 일입니다。 이 民族에게 주고가신 將軍의 寶鑑이 녹슬고 좀 먹엇슴과함께 이 民族의 마음과 찬자도 녹슬고 좀먹어버린지 오래입니다。 그러매、제몸을알뇌 제民族을모르고 제할아버지는모르는 [illegible]을 [illegible]하엿습니다。 그러매 [illegible]들은 배人노릇하가에밤버 將軍을 차저뵈압지못한것이요 [illegible]들은 美色을닥기 [illegible]하야 將軍의 墓宅이 [illegible]에잇서도 모르고지내고 마릿습니다

將軍이 水兵操鍊을 하시든大同江 將軍이 隨軍의 피로물드린 淸川江물은 지금도 옛모습그대로 가리호르고 잇습니다 한비되 쪽비되 悲淡한그表態도 千年을 하로가티엣얼굴그대로 직히고잇습니다 들이 그럿코 山또한 그럿습니다 그러나 바귀고 달러진것은 이땅에 부러사는 사람들입니다。 억세고 굿굿한 高句麗사람의 風度는 차즐길이업습니다。 民族的功勞者를 表彰하야는 死後까지라도 崇奉을 奉大한 墳墓을만드러 精魂을 安하고 業을 顯揚하는 高句麗의 遺風은 벌서 살어젓습니다。 이런深厚한 精神이래 湮廢된 當時의古墳들은 [illegible] 선비들손으로 파뒤지고 캐고허처 어그러든 漢나라 어느송씨와 비슷하고 어그릇은 몃해뭇어 骨董가시 얼마가된다는 野薄한 評價資料가 되어잇슬뿐입니다。 이뻐는 어느어른의 뼈인데 우리民族에게 어떤貢獻이 계신분이라는 그무덤의 精神을 闡明할라는 後孫은 눈다고 보아도업습니다。

이러틋 이民族은 情에 無心하고 義에 게을해젓습니다。 그러니 將軍의무덤을 이쯤을만드러두고도 遊然히 지내왓습니다。 그러나 高句麗의 피를이어난 우리가 將軍의 피를 타고난 이 民族이 終乃 이런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永遠히 장울캐자면허로것은 및지안습니다。 아모리 一時無禮에서 낭詐降이라고하드라도 勳績의 功을주어 神策究天文 [illegible]

妙算窮地理 知足願云止 이러틋 大海가른眼度를보여주신 將軍이신지라 어두운後孫들의 망영된버릇을 널리 容恕하실줄밋고 도라갑니다。』 나는將軍의 墓아페서 이러한 默念을하고 墓前에 告別을한 後빗낫을 [illegible]엿다。 길도업는 솔포기새이를 타고 내려와 [illegible]里에서 점심을마치고 다시 뻐쓰를 잡아 타고 平壤으로도라왓다。

平壤에내려드르니 平壤의有志 曹晩植 金炳淵氏等의發起로 乙支文德公墓所保存會를만들고 實業家들의 義金을빌려 將軍의墓를 重修코저 計劃을 進行하고잇습을드럿다。 얼마나 반가운일일가 이는 後孫되우리들의 當然한 道理인同時에 無心코지금까지온 雪恥運動도될것이매 當然한 後援이잇기를빌며 京城으로 발바하엿다。(完)

# 四象醫學批判 (續)
## 그理論과實際에關하야
### ⑤ 李乙浩

附子가 熱劑라하지만 李濟馬는 小兒汗多亡陽證에 大凡六兩重을(一個月동안에)쓴 治驗例가잇고 巴豆 大黃 甘遂 南星等의 劇劑도 제길을 밟으면 毒性이 도로혀 聖藥이된다。 그러므로 藥은 毒性이 업시는 제구실을 하지못하나니 毒과藥의 區別은 鮮明치못한것이다。 一例를들면 (筆者가 直接所見한것은 아니나) 巴豆는 劇性이 잇스니 濫用을 不許하는 藥材이지만 鼠食肥大라하야 쥐에게는 膏粱津味이나 쥐의好餌가 사람에게는 有害하다면 動物試驗의面目은 어드가 [illegible]

七、四象人心性論

四象醫學을 大別하면 體質論과 氣質論(性情論又는心性論)이라할것이다。 體質論은 體系的이요 氣質論은 精神的이다。 精神作用 卽 心性이 身體에 미치는影響은 緊密하고도 莫大하니 精神은 動力이요 肉體는 機械이다。 機械는 動力이 업서는 活動할수업고 動力은 機械업시는 無能한것이다。 四象人의 氣質 卽 心性의 硏究는 體質의 硏究에 지지안흘만치 重要한 까닭은 이兩者의 關係는 相扶相依하야 心性의 動向에 體質이 規定하고 體質의 變動에 心性이 影響하는까닭이다。 그러므로 이兩者의 硏究는 늘 倂行하지안흘수업다。

이는 心理學上 心身倂行說이가지는 立場과 가틈가한다。 多少 孔心論的色彩가 김다할것이니 그들은 말하기를 意識過程과 神經過程이 果然히 平行한다고만 할수업고 相互因果關係에 잇다고 말한다。 卽 一面의 外的過程에는 이와倂行하야 內的過程이 잇고 一面의 內的過程에는 이와倂行하야 外的過程이 따른다는見解와恰似하니 物體에도 心性을 附與하고 心性도 스스로 形體를가진다는 孔心論的 解釋과 類似함을 늣길수잇다。

# 海外短信

고-간新作公開

[illegible] 最近 畫商들의 손을거처서 [illegible] 「꾸-욕」의 『마리-!』[illegible] 이 그림은後期印象派의先驅者로서의 「고-간」의 貴重한 [illegible] 第一問、[illegible]四氏의大幅『我等은어데로부터와서 어데잇스며 그리고 어데로갈것인가』하는 象徵的인 畵題가부터잇다。 그가 [illegible] 千八百九十七年에 完成한것이다。 [illegible]

# 讀者社交室

▲二十日附本欄安家一松生의게 戊戌年八月五日은 陽曆으로一八九八年(明治三十一年)九月二十日임을 알려드리나이다 (京城韓初生)

▲摘錄에 對하야 말슴하신S生께드립니다 必要가 잇스니 住所를 가르켜주십시오 下記住所로요。 信川郡石塘市內洞 康鎬奎

▲栗谷全書 舊版二十一冊 一 地圖=中國地圖 朝鮮全圖 그리고各道의地圖 다 만[illegible] 全羅兩道 것만은[illegible]떨어저나가버렷다 勿論古物이다。 右記栗谷全書와 地圖를相當한價格으로 讓渡하고저하니 뜻이잇스신분은 곳通知하여주십시요。 그리고도저한데 한貼이 몃개잇스니 이것도뜻이잇는분은 左記住所로 問議하여주십시요。 京城府崇仁町五九六番 李明順

▲判任文官講義 四個月分(分冊)치 잇사오니 左記冊子와交換하실분은 左記住所로 通知하소서 端宗哀史나 지용시집이나 [illegible]이나 金億著 漢詩역及詩集이나 平和와自由及 아릉다운새벽(二冊이나 名作選集中 어느것이나와도 交換하겟나이다 其他定價一圓五十錢內外의 文學書類나社會學書類와도 交換하겟나이다 平北龍川郡北中面楊城洞四二〇 張根厚

▲京城市內 或은 市內近郊에 [illegible]

一、朝鮮日報에 連載하얏든李光洙先生作「그女子의一生」을오려두엇스니 熱讀코저하는분은 直接或은間接으로 左記住所에問議하시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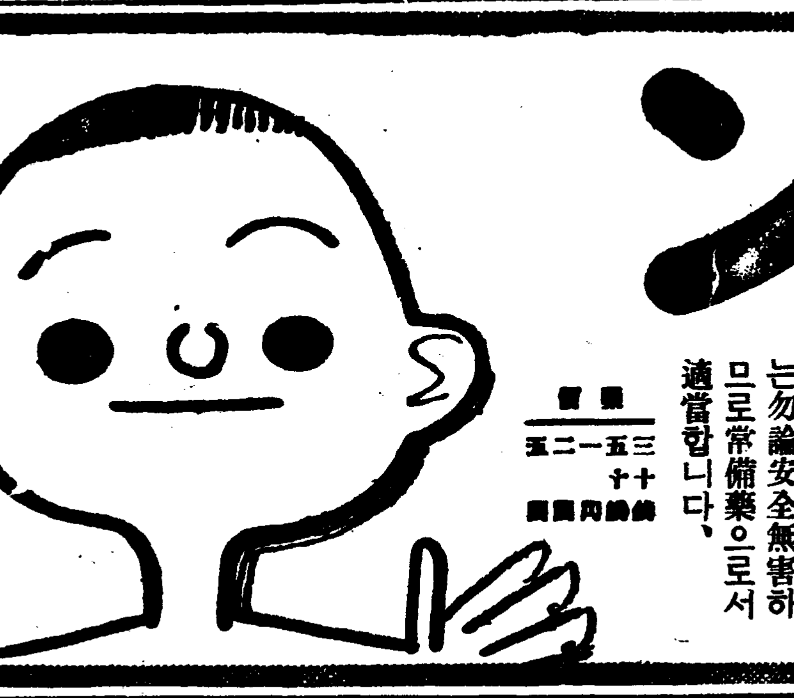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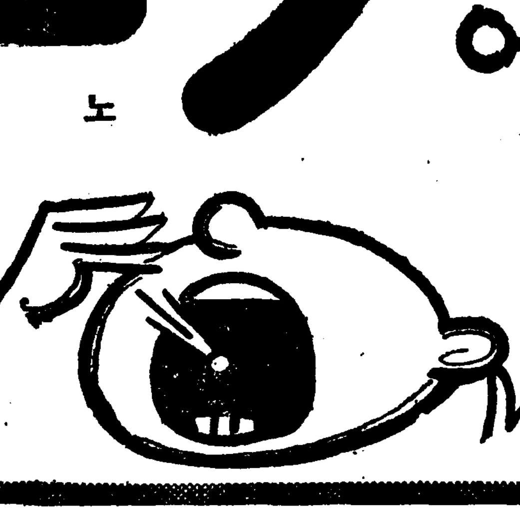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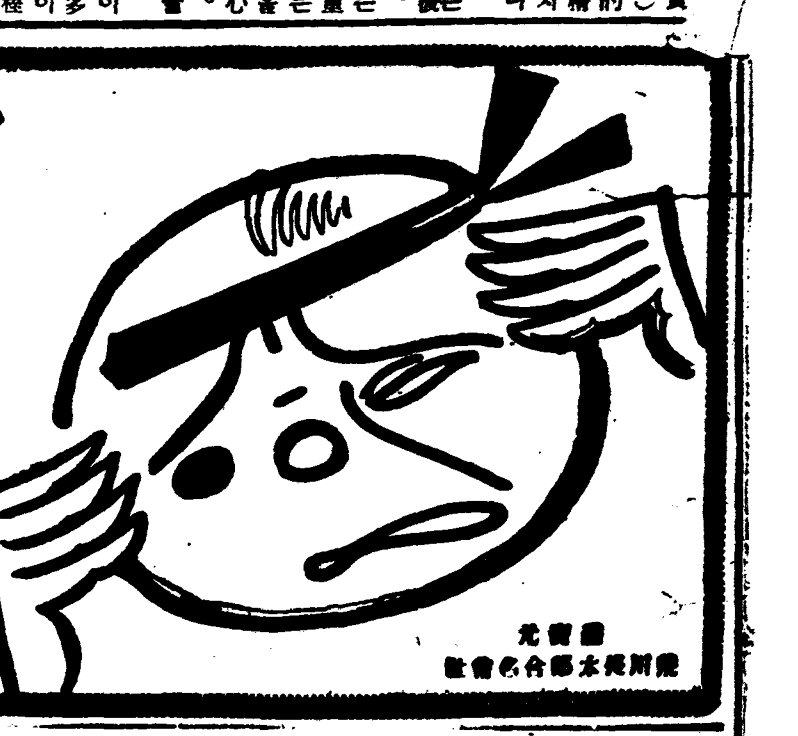
二、그리고讀者여러분께서 或읽고나신「困れた大地」와『지-드作』『좁은문』小說이잇스면 讓渡하소서 市內樓下洞一七四番地 金光鎬

▲劉斗燦 힌솔 金錫意 金世鉉 方仁根 金道鉉 洪漢杓 諸氏에게消息 좀 알려주소서 오랜隔阻에友情에목말럿나이다 或다른분이라도 그들의住所를 아서서 이社交室로나 저의집으로 通知하야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水原邑山樓里一一〇 李大容

▲大正四年陰十二月十一日戌時는 陽曆으로大正四(或)五年何月何日何曜日午後何時何分가량이며 其當年太歲、月建、日辰、天干을仔細히 調査하야서 本欄으로 明確히下敎하야주시는분은게 特別謝禮하겟습니다(附記=右調査하신분은 書名明記하야주시면 百倍感謝하겟습니다)後知生

▲「싱거-미싱」中古品을(발틀조는듯을勿論하고)讓渡하실분이 게시면 下記住所로 價格及使用程度를通知하야주시면 곳차저가 뵈옵겟습니다。 元町四丁目七七番地 吳英煥

▲讀者諸位健康하십니까? 生이 現在某學院의 現職敎員으로잇사오대 좀더規則的生活을하기爲하와 家庭敎師로가라하오니 求하시는분과 子孫을爲하시는분은左記住所로通知하여주시되 金錢報酬는업서도關係업습니다 京城竹添町一丁目六十九 金鍾國





頭痛에 ノーシン (노-신)

머리가 아파서곳 노-신을服飮하엿습니다…… 一分 二分 五分 이슨듯이나어버렷습니다!

노-신의 優秀한點은오즉頭痛을낫게할뿐만아니라頭腦의疲勞를恢復하는獨特한作用을갓고잇는것입니다、그러나常用하면神經의榮養을조케하야心臟을强하게합니다、또胃腸等에는勿論安全無害하므로常備藥으로서適當합니다、

定價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五圓

發賣元 [illegible]合名會社

淋疾 특효신약 複方 노보-루 球

全國著名病院採用

놀나운이효력 止膿·鎭痛 消炎·殺菌 收斂·利尿 作用的確

本劑는高木、井尻兩博士 臨床實驗結果治淋內服藥으로서 醫治作用이 的確하고 副作用이 絶無한優秀藥으로認定되엇고 全國著名病院에 採用을밧고잇는完全製劑입니다 一時患者를誘惑하는誇張廣告의藥과는判異한것이니 特히此에注意하시고 合理的製劑인 노보-루의服用으로 淋疾을根治케하십시오

包裝及價格 三〇球入 一·〇〇 五〇球入 一·五〇 一〇〇球入 二·七〇 二〇〇球入 五·〇〇

說明書文獻進呈

京城西小門町 株式會社 藤澤友吉京城支店 本店 大阪道修町


KN62

連載野談 布袋記 (廿一)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머슴살든임검 (九)

늙은군사가 옴모를 못잡고야단을 치든것을 구경하든 농부사람들은 그 늙은군사가 도라간뒤에 혹은 자긔집으로 돌아가고 혹은 수십名 둥구러케잇는 큰 느릐나무 아레로 모아들엇다。

「허허。 비는 영영 안올 모양이로군!」

하며 한 늙은농부가 하늘을처다 보면서 한탄하얏다。

「비? 비는 틀엇네。 대관절 엇덜이야? 이월、삼월、사월、오월、유월、칠월、 벌서 반년동안이야。 비커녕 가는 구름한점도 못보지가――」

하며 다른 늙은농부는 비가오지아니한 달수를 손까락을 꼽어 세이면서 먼저 말하는 늙은 농부의 말을 따라서 또한 한탄한다。

이때 한 늙은농부는 어린손자아이가 땅에서 무엇을 주어먹은것을 손까락으로 파내고、입을 씻서 주면서

「자네들은 웨 비가 그러케반년동안이나 안오는까닭을 모르겟나?」

「그것 알수업지。 필경 하누님이 망녕이 나섯거나、 룡이 모두 어듸로 달어 낫거나한거야。」

「하누님은 웨 망녕이 나시고 룡은 웨 달어난 까닭은 모르겟나?。」

「그것을 어러케 안담。」

「허허。 악가 옴모집에서 늙은군사가 야단치는것을 보고도 이러케 감운까닭을 몰나?」

「그것을 보고 어찌 안담?」

「흥。 만민의 부모라하는 임검이 삼촌을 죽이고 동생을죽이고 그 족하까지 마저죽이려고、거리、거리에 방을써붓친다。 군사를 사면팔방으로보낸다。 이와가티 천륜이 끈허진 나라에 어찌하니 천변이 업슬리가잇서?。」

「그러면 우리 임검께서 그로선까닭에 비가 안온단 말이지。」

「쉬—。 말을 조심하게!。」

뚜 늙은농부가 비가아니오는까닭을 이야기하는중에 왕께서무도하신 탓으로 비가아니온다는 말을 들은 다른 늙은농부한사람은 그런말은 말라고 권하얏다。

그러나 그 느릐나무 아레에 모아 안진 농부들은 그런변지재가 모두 왕이 어질지못하신 까닭이라고 생각한것은 다맛한가지엇다

이와가티 가뭄의 소동은 고구려 천지에 가득찻고 떠안서 그 가물게된 까닭이 모두 왕께서 천륜을 끈으신 천벌이란 원망의 소리도 또한 놉핫다。

그런데 이때 왕께서는 을불을 빨리잡지 못하는것을 크게 근심하시는중 그늙은군사 역시 빈손으로 돌아온것을 크게 분히 역이사 다시 눈치 빠르고 날샌 군사를 떼옷 만히 뽑아 사면팔방으로 보내신뒤。

「집이 이제 이궁을 면면곳에떠지코저 하노니 나라 백성중에 나히 열다섯살이된 남녀는모두 역사에 종사케하여라!」

하시는 분부를 내리시고 곳그뜻으로 각지방수령에게 교지(敎旨)를 내리셧다。

왕의 이 교지가 각지방백성에게 알리게되자

「허허。 가뭄으로 농사를 못짓케되엇스니 굴머 죽게되엇고 배곱흠으로 큰 역사를하게되엇스니 맘녀죽거되엿구나。 어려죽고、저려죽고、우리가다 죽으면 임검님께서는 누구를 데릴고 임검노릇을 하시려는고?。」

하며 백성들은 기 한탄하기를 마지아니하얏다。

그러나 왕명은 질되고 롯희고 감에 지중한지라 어찌 거역할수잇스리오。

그리하야 거리、거리에 사람의 그림자가 불게지듯 일러니 몸에는 푸른옷을 입고 머리에는 붉은 때띄이를 쓴 사람들은 울음을 장으러 가는 군사요、 다떠러진 베옷을 입고 고구려 서울로 향하고 올나오는 百姓들、 젊은사람、 어린아이들은 어디역사를 하러오는 사람들이엇다。

그런데 왕의 분부를 어인국상(國相)명림답부는 엄동비지 앙베 여지고 우아래 입술을 칵아물고잇다가 금일 여러 문무관을 국상의 공사청으로 청하얏다。

그 공사청은 살귀가 뚝、뚝 때로엿다。

# 映◇畵◇와◇音◇樂 (2)

金管

토ー키ー音樂은 一般音樂과는 다른點을가지고잇는것이다 勿論 共通되는點을가진것은잇스나 토ー키ー만이가지고잇는 特別한것을 注意하지아니하면 아니된다 卑俗되어야기지만 一般이生覺하기를 토ー키ー音樂이라는것은 普通音樂을수잇는 音樂을 토ー키ー가운데適當하게 揷入한것이라하기쉽다(그야初期作品에 잇서서는 그러한 無數의 非토ー키音樂으로된것이잇고 오날까지도 그러한傾向은 남어잇다)

우리는 爲先 토ー키ー가音響學的으로어떠한制限을 밧고잇는가를記憶할必要가잇다。

사람귀(耳)로듯을수잇는 音의 範圍로말하면 最低音은 一秒間 十二振動으로부터 十六振動까지의振動數고(이것을 最低可聽音의 振動數라고부르다)最高音은 一秒間二萬振動(最高可聽音)前後로서 個人에따라서 差異가생기는것은 잇지만은―알어두어도조타

피아노의音은 最低約廿六回最高約四千二百回 (倍音을加算하면 約一萬七千回)사람音聲은 最低가 約八十五回、最高는倍音을 加算해서 約一萬回假量이다

그러면 토ー키ー필님에記錄할수잇는音의 振動數는엇더한가?

最低로말하면 制限이업고 最高는約一萬二千四百回 필님이回轉하는速度가 一秒間四五六耗 錄音振幅은一千分之十七耗로할때다 오날 使用하는 調色필님『소노크롬』(Sonochrome)調色로지・필님、或은 팡크로마치그、필님、또는 수파ー×等 필님으로말하면 우리들이 들을수잇는音과音을 가진다 레코ー드音樂은 그러나實際上으로 말하면 錄音操作에따라서 或은 撮影할때의 錄音의 技術에따라서 필님現像가달너지고 하기때문에 이可能性은現實化되지못하고잇다

그럼으로 오날의狀態으로서본다면 토ー키ー의錄音으로말하면 그錄音裝置가 사람의귀(耳)로서 못듣는이보다 敏感하지는못하다

다음으로 가장重要한것은 사람의 귀와 토ー키ー와는 다른 점、卽 다시말하면 사람의 귀는 音源하면 압뒤、左右、上下어느곳에 잇는音이든지 똑가치感受할수가 잇지만은 토ー키ー로말하면 그 마이크로폰의 位置와 距離關係에 따라서 音量이크고 적고함을따라 音의 方向을 識別하는 感知性이 업는것이다、어떠한데서 토ー키ー音樂을 普通、音樂會場에서 演奏하는音樂처럼들니게하려면은 여러가지의 特殊한研究(技術)가 必要하게된다、普通音樂이가지고잇는 音量音色、양상블의均衡과 토ー키ー의그것들과는 全然달은것이다。

實際로 우리는 映像과音響의 關係를생각해보아야겟다。

一般音樂으로말하면 演奏者가 잇고 聽衆이잇다 한曲을演奏하는데 演奏者와 聽衆과의場所的關係는固定하여잇고 變함이업다 聽衆으로말하면 一定한場所에서 演奏하는演奏者를보고잇다 (或은 라듸오를듯고 想像할수잇는 스타듸오안에잇는 演奏者를想像할수도잇겟고 庭園演奏를 房안에서들을때 亦時 한場所에서演奏하는演奏者를 想像할수가잇는것이다)

그러나 토ー키ー에잇서서 演奏者와聽衆(觀衆)과의 場所的關係는 一定不變하지아니하고 流動可變性을 가지고잇슴을본다。 聽衆(觀衆)으로말하면 畵面가운데잇는 演奏者를본다 그러나그다음瞬間 全혀다른場所의 畵面이나타나는때가잇다。―그럼으로 映像의音樂을 飛翔식힐수잇고 或은 音樂이映像을 飛翔식힐수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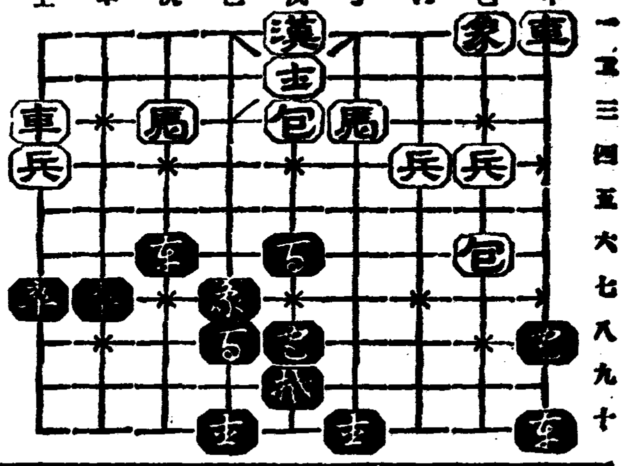
一般音樂의 演奏樣式을 그대로 토ー키ー가운데로 가저올수잇다고하는 平凡한 說은 오날도 단지 抽象的으로 映畵는綜合藝術이라고하는 친고들이 말하는 『토ー키ー는 映畵와 音樂의 綜合藝術』이라는데서 誤謬를 犯하고잇슴을 본다。

例를 들면 『未完成交響樂』가운데 슈ー벨트가 자룡에서 피아노를 演奏할때 피아노演奏가 어느듯 管絃樂으로되고마는 畵面이잇다。 이런것은 普通音樂에서는 到底히 生覺할수업는것이지마는 토ー키ー에잇서서는 可能한것이다 따라서 토ー키ー音樂은 映像과 密接한 關係를 가진랏으로 特殊한 領域을 가지고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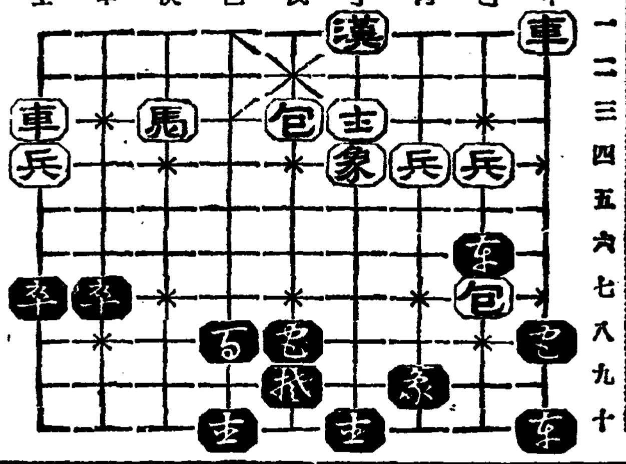
#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五)

李在鳳 對 先手 金于石

◀圖十四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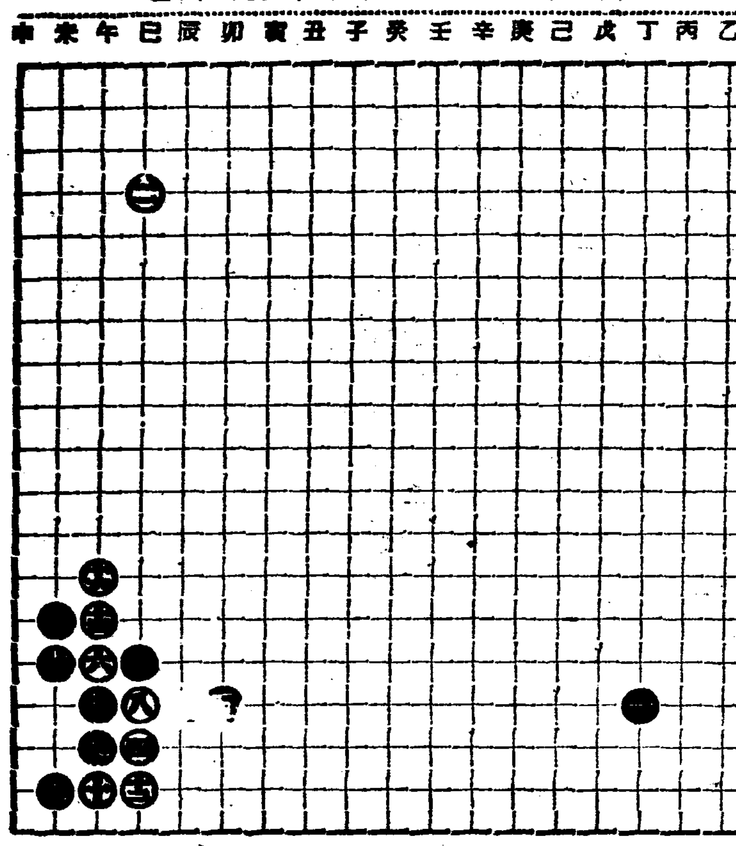
◀圖十五手▶



戊⑩馬—己⑧ 乙⑦包—乙⑤ 庚⑥馬—戊⑥ 戊一漢—丁一 己⑧馬—丁⑦打馬 戊三士—丁三打馬 己⑦包—丙⑨ 乙②包—乙② 戊⑥馬—乙⑥ 乙一象—丁三

#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

白 丁叄春
黑先 任佑植



一 丁의十六 / 二 巳의四 / 三 巳의十五 / 四 巳의十七 / 五 卯의十六 / 六 午의十五 / 七 午의十六 / 八 巳의十六 / 九 午의十七 / 十 午의十八 / 十一 未의十八 / 十二 巳의十八 / 十三 未의十五 / 十四 午의十四 / 十五 未의十四 / 十六 午의十三

黎明文氏評曰 此圖는 黑의積極的決戰態勢이다 黑丁의十六 白巳의四는 改革新式으로 對照方法에 不過하고 黑巳의十五를 白이 巳의十七로 應한은 此是流例施行이므로 黑白雙方에 若無突飛前進展이면 利害關係와 分割判定이 均等으로 看破하노라

★曆★

五月廿四日(日) 建癸巳 陰四月小 (初四日) 丙午・水・星・除

●祭祀에宜함
●小滿二十一日(陰初一日)
●芒種六日(陰十七日)

一航空十三時間一 파라마운트映畵『航空十三時間』에나오는 共演의三人 左로부터 푸렛드・마크마레 쭌・베네트 쭌하와드

# 海外映畵消息

『佛蘭西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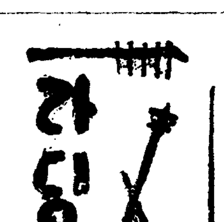
近者의 佛蘭西에서새로 製作된映畵를 紹介하면 다음과갓다

『野性의아가씨』(막스・그라스作品、프로라필름配給)는 포ー렛드・듀보스트孃의 젊음과 喜劇味를主로해서로ー잔느를 背景으로全篇의 約四分之三은 全部野外撮影으로한 映畵이다 愉快한 部分도잇스나、장・드・리뮤ー르氏의監督은 冗漫하다 原作은 『장・드・레ー로라ー즈』氏 『피에르・라르케』氏『제ー르메ー느・로ー제』孃『장・베ー베르』氏『丞제노겐』氏『포ー레』氏 뮤시엔느『루마르샹』孃 『크로ー드・메ー』孃 『크리스차ー느』는 드리ー느孃等의 共演。撮影은『렛드、파ー르』『멜간등』諸氏이다。

『노저어라 내마음』(필립、介바리니作品、G、E、O、E配給)利己主義의 家族中에서 젊은氣分으로새로운 生命의힘이 躍動하는 말이 出家한다는것이 大體의梗槪인데 映畵는칸活과 大洋上의『요트』우에서 展開되다 愉快한 노래까지석겨서 젊은氣分이 넘치는映畵이다。『로메르、쇼ー브로』氏原作、『앙리・루ー세르』氏指導下에서 『작크、다로아』氏監督 『니코르・바ー렌』孃과 『루베ー루메ー브르』氏가 主演했다。『앙리・루ー세르』氏 『쇼르로드・리제ー』夫人 『작크・모ー리』 『리ー스・레미ー』氏 『기ー・스루ー』氏等의 助演이다。臺詞는 『작크・모ー라ー』氏 撮影은 J・P・『고로ー』『오ー부ー르듸에』『쟝비에』三氏 音樂은 『모ー리스 이벤』氏 『셋드』는 『루아리ー』는氏이다。

『봐리에레』(巴里 E・F作品、파레・콘소르시움配給)『니코라스・파르카슈』氏가 原作、脚色、監督한 作品이다。內容은 地方巡廻하는 『서ー커스』와 『뮤직・홀』을 舞臺로해서 戀愛의 三角關係를 그린作品이다。『시뉴에이숀』에는 좀 비슷한點이 잇스나 『E・A・듀퐁』이 製作한 『봐리에테』와는 別個의것이다 主役은 『안나・베라』氏等이나 『장・카방』氏『베르낭・그라베ー』氏등이나 撮影은 『안나베라』가 만히 失手하엿다

# 라듸오



二十三日(土曜)

◇午後六時三〇分 레코ー드音樂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時事解說 李相薰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三) 崔南善
◇同八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 ―입센三十週年祭―「人形의 집」―입센作― 第三幕 劇藝術研究會演出 咸大勳
◇午後九時十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瀟湘八景 二、唱劇調 春香傳中御使出道 朴八卦 鼓手 韓成俊
◇同九時三五分 靑春歌外 一、靑春歌 二、노들江邊 三、도라지타령 四、닐리리야 五、密陽아리랑 六、興打令 張香蘭 細笛 姜龍洙 奚琴 李忠善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노래공부
◇午後六時二五分 (東)生活改善講座 永井潛
◇同七時三〇分 (大)能樂― 觀世左近外
◇同七時五五分 (東)長唄 坂田仙八外
◇同八時一五分 (東)歌劇 라지오른다 第二幕 코사리오
◇同九時五分 (名)佛法僧鳴聲實況 三河國鳳來寺山腹에서中繼
◇同八時三〇分 (東)三曲
◇同八時四五分 (東)歌謠曲

二十四日 (日曜)

◇午前一時 野球試合實況「慶應對早稻田」―戶塚그라운드에서―
◇同六時三〇分 童謠 一、靑唱 봄 二、同 개골이 三、獨唱 그리운엄마 四、靑唱 고기잡이 五、獨唱 어린송아지 六、同 숫자 七、同 인형 八、靑唱 뭐지할멈 九、同 농촌의아들 張師主日學校幼年部 獨唱 徐慕蓮 伴奏 劉貞順 指揮 鄭永來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演 牧師 洪大衛
◇同八時 時調 一、平時調 二、지름 三、辭說時調 高永來
◇同八時一五分(東) 歌劇 라・조꼰다 第二幕 코지리오―봉키리作曲 伊庭孝譯詞― 配役 (發聲順)― 바루나바……內田榮一 엔쪼……平間文壽 라우라……四家文子 조꼰다……佐藤千夜子 日本放送交響樂團 合唱 보ー칼포아 指揮 篠原正雄
◇同九時五分 音律『靈山會像』 朝鮮正樂傳習所員

第一放送

◇午前九時三〇分 (東)어린이時間
◇同九時五〇分 地方에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 朝滿交換放送「朝鮮舞踊曲 僧舞曲」 大笒 方龍鉉 細笛 韓成俊 奚琴 金德俊 杖鼓 池龍九
◇同一〇時四〇分 (東)趣味講演
◇同一一時一〇分 (富)講演 山家基治
◇午後一時 (東)臺灣파派遣決定 陸上豫選實況 雨天이면左二個放送
◇同一時二〇分 (東)舞臺劇
◇同二時五分 (大)喜劇
◇同四時二〇分 (東)大角力實況 兩國國技館에서中繼
◇同六時 (大)라듸오스케취
◇同七時三〇分 (大)日曜特輯뉴ー스演藝
◇同七時五五分 (東)長唄
◇同八時一五分 (東)歌劇 坂田仙八外 라지오른다 第二幕 코사리오
◇同九時五分 (名)佛法僧鳴聲實況

二十五日(月曜)

◇午後〇時〇五分 俗曲 一、山念佛 二、靑春歌 三、柳笙 四、방아타령 五、양산도 六、奚琴獨奏 七、사발가 八、咸鏡道아리랑 冠瀟 崔壽成 柳笙 洛龍九 細笛 高載德 奚琴
◇同三時一五分 講演『社會生活과公德』 延專副校長 兪億兼
◇同六時三〇分 이야기『五月에난偉人이야기』 晉成高普 黃義敦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經濟解說 朝鮮日報社 主筆 徐椿
◇同八時 講演『結核豫防데이實施에對하야』 朝鮮結核豫防會理事 吳兢善
◇同 八時三〇分 流行歌 一、無情 金壽麟作曲 二、靑空九萬里 羅素雲同 三、고달픈身勢 金壽麟同 四、가오리 同 五、갈때꼿 同 六、봄노래 李圭男
◇同 九、〇〇 唱劇調 一、短歌 世上事 二、唱劇調 春香歌中獄中歌 書 鷄 頌 鼓手 丁元燮
◇同 九時三〇分 野談『碧空悲曲』 庾秋岡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英語講座
◇同十時三〇分(京) 家庭講座 佐竹直重
◇午後〇時五分(東) 토ー키ー이야기
◇同二時(東) 婦人講座
◇同六時(東) 라듸오、스케취
◇同六時二五分(東)基礎英語講座 東京放送童話劇協會
◇同七時三〇分 講演 西鄕三圭
◇同八時 라듸오코ー드交通四重奏 豐谷榮
◇同八時四五分(大) 民謠組曲
◇同九時五分(名)佛法僧鳴聲實況


# 斷然!! 朝鮮雜誌王

# 朝光 六月號

곳消息도 가고 香그런新綠의물결이 흔들리는六月!『朝光』은 新鮮豊富한內容으로여러분압헤또나타낫습니다 發賣되기始作하면 暴風雨를휘모라치듯 霎時間에賣盡이될 이朝光六月號는더욱六月陽光과 함께빗납니다

廿五日発売

◇빗나는表紙
◇어엽뿐畵報
◇實益잇는論文
◇滋味나는小說

即速注文하시라! 定價三十錢 地方郵便本社負擔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 振替京城五八七八番 朝鮮日報社出版部


「朝光」 六月號 (第二卷・第六號)目次


表紙……安夕影
畵報 一六月의一幸運의舞踊포ーㅈ一(1)、마음의프르남게 (2)、出帆(3)、驀進、蒼空、 騷女의新興、반다의歷史、人生은지나간다 白帆과白鳥、마르카 藝術은엇더한가?
事件中에서 메르로ー맨스
◇絶望은否……金晉燮
◇正體모를그女人……金煥泰
△玄海灘上의一夜……林和
△스무時間의戀愛……李石薰
△瞬間戀愛……安懷南
△電車가호젓을나어……金裕貞
△고호麗感에빠저다가……蔡萬植
△車中에서吐露하고……李一
心境雜草 好實有罪……金石松
時事論文
統制經濟의新方向……徐椿
國際聯盟機構의死滅……金明容
西半球國際聯盟出現乎……韓晳容
滿蒙의國境問題……李元坤
增稅와富國……李健赫
無情을쓰든때와其後……李春園
◆孤兒의追憶
아런픗한時節……李泰俊
轉轉하는孤影……許然
哀悲한追憶……韓昇寅
敎育問題特輯
當局의敎育政策을論함……咸尙勳
敎育朝鮮의現況……李甲燮
笑話……文壇消息……消息
漫文漫畵
△모던沈淸傳……金熊超
△全大砲……崔永秀
朝鮮文學에 나타난僧侶生活『言歌』……權相老
隨筆
窮巷斷文記……李源朝
엄마의心境……崔以櫃
哲學時感……金其錫
東學黨首全琫準……車相瓚
어린이 相互間에 敬語를쓸가?
自然性을 그리다……金珖燮
너무形式的이되다……李克魯
말의組織으로보아反對한다……李??
斷髮女性언파레이드……一記者
短篇實話 쥐무서하는사람……卞榮晩
心境告白 나의失戀記……金文輯
普學巡禮 亞米利加音樂……金管
學爭……白花郞
連載探偵 明眸有罪(原作 ??)(第二回)……李軒求譯
△科學과家庭
初夏에무서운菜毒과그療法……鄭??陽
兒童과菜食……李??卿
夏節의朝鮮料理……金??
童話『꿈』……金福鎭
崔承喜게보내는公開狀……金文輯
野談特輯
朴叔夜……申鼎言
唐郊小后……靑吾
鄭汝立……史外史人
李土亭……申翊雨
絲衣의處女……李花村
萬石군이쌀두되로奉祭……沙雲山人
水壁二十萬里放浪記……李克魯
◇創作
映畵小說 悲雨……安懷南
短篇小說 ……韓雪野
中篇小說 白日夢과雪歌……李秀嶽
長篇 ……咸大勳

登錄商標

CH. TAKEDA & CO. LTD. OSAKA

新藥 局方 工業 化學

# 藥品

資本金 壹千貳百萬圓
積立金 四百萬圓

創立年月 天明三年四月（皇紀二四四三年 距今百五十三年）

總本店 大阪市東區道修町
製藥本工場 大阪市東淀川區十三西之町
製藥分工場 兵庫縣川邊郡川西小花
研究部 大阪市東淀川區十三西之町
試驗部 大阪市東淀川區中津町
東京出張所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仙臺出張所 仙臺市新名縣町十九番地
臺北出張所 臺北市本町二丁目
奉天出張所 奉天松島町二十番地
大連出張所 大連市東公園町六十六番地

#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 營業內容

◎本店은 始業의創立이天明三年四月로（西曆一七八三年四月）當代는五世이고、距今百五十三年으로서藥業界中에唯一한老舖이다。

總本店은洋藥의中心地點인大阪道修町에두고、營業人員은四百五十餘名이다、總本工場은其基地가三萬餘坪・專門技術者百餘名・製藥從業員一千餘名으로製造의種目은局方藥品以外에、最近의研究實驗에依하야百餘種의新藥을製造하고잇다。

◎本店은學術의進步와 能率的製造로優秀한製品을廉價로生産케됨을딸하서世界各國의治療界에도널리供給하게되얏다

◎本店은 南洋（爪哇）에八百二十餘町步의規那農園을自營하므로金鷄納等의製造原料에는充分히自給하고잇다。

◎研究用・試驗用・分析用・標本用의化學藥品이잇스니、從來純良한製品이업섯든것만큼、使用者로하야금其不便이極甚하얏든바玆에特殊한施設로武田化學藥品株式會社를設立하야各種目의化學藥品을充分히準備常置하야써官公私立各大學을비롯하야一般私人研究家에까지提供한다。

◎本店은神戶衛生實驗所・大五製藥・帝國臟器藥研究所等三會社와聯體이므로前記三社의製品은全部本店을經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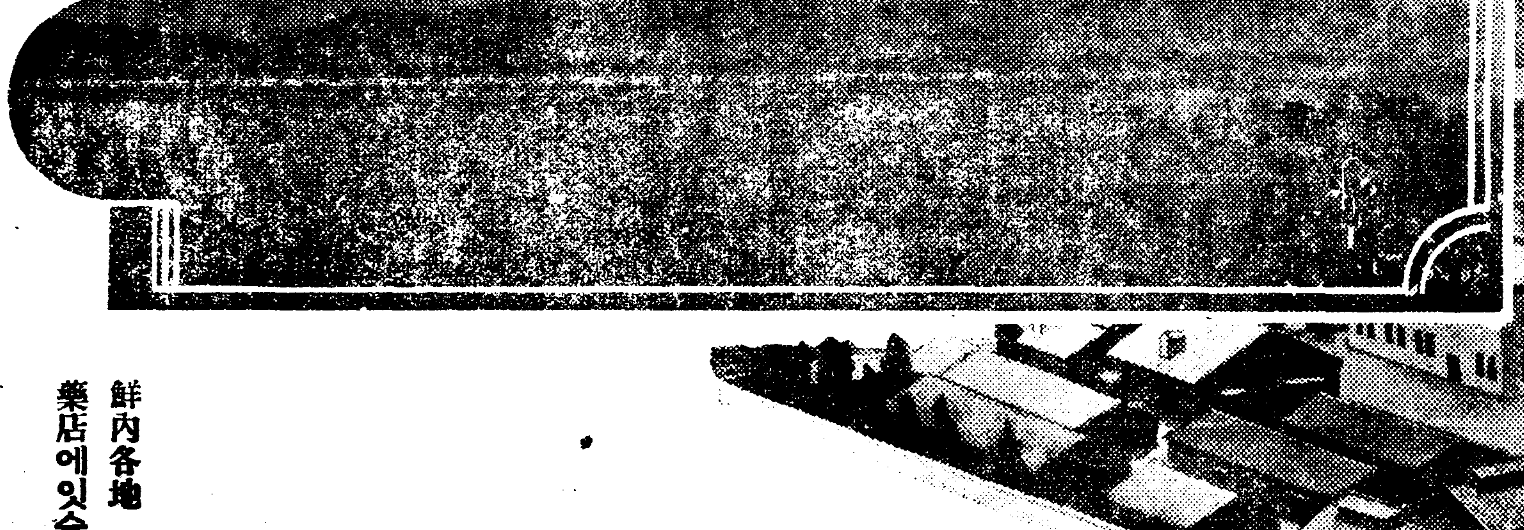
### 武田商標著名局方藥品

鹽酸キニーネ（金鷄納）　次沒食子酸蒼鉛　ヂアスターゼ（지아스타-제）
アスピリン（아스피린）　硼酸　アミノピリン（아미노피린）
アンチピリン（안치피린）　乳酸　ブロームカリ（부롬가리）
重曹　サリチル酸（사리치루酸）　昇汞
次硝酸蒼鉛　サントニン（산도닌）　甘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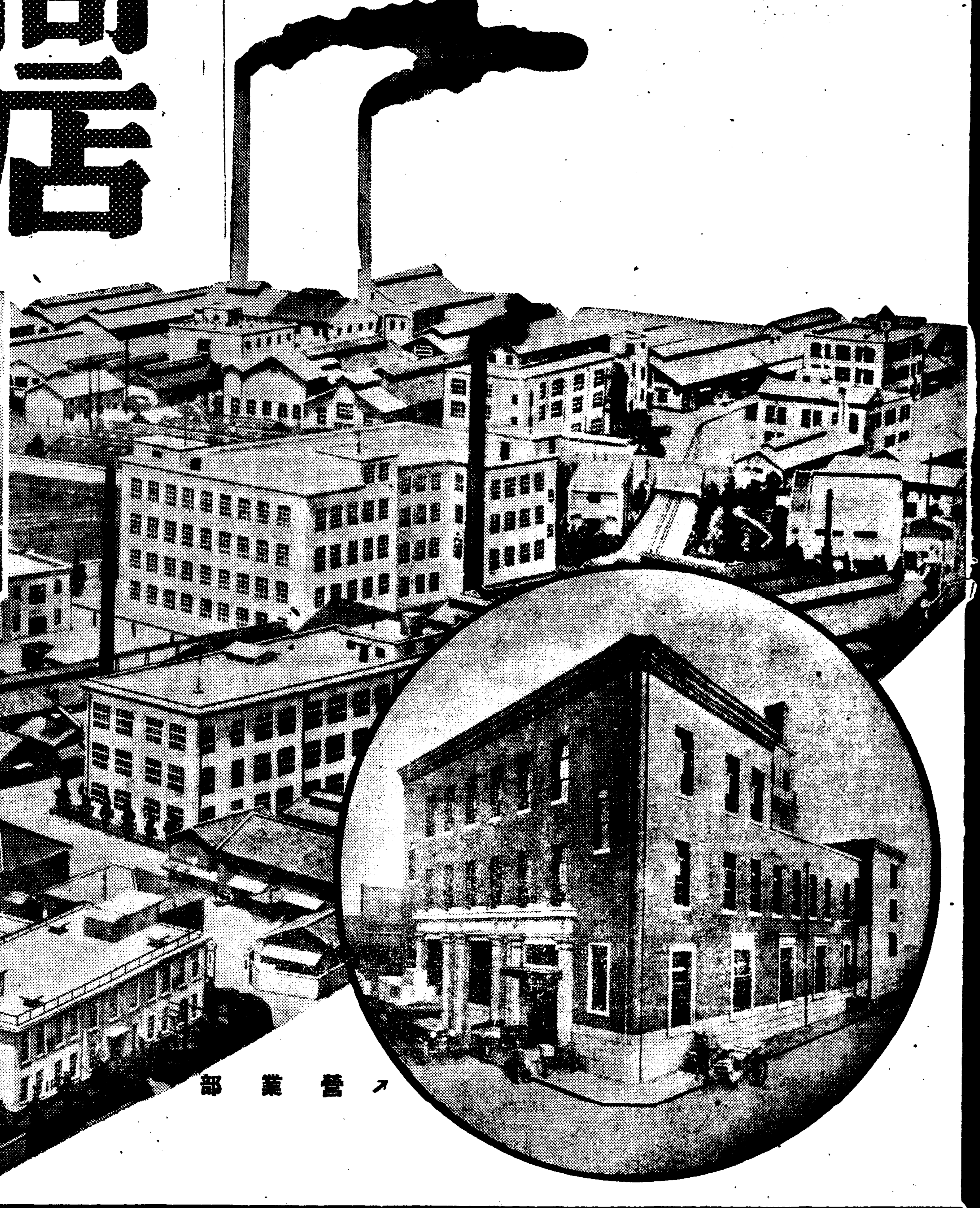
【商標에注意하시압】

### 武田商標著名新藥

胃腸病新藥　アベチン（아떼찐）
キニーネ注射液　バグノン（바구논）
鎭靜催眠藥　カルモチン（가루모찐）
肺炎特効藥　ヒネロン（히네론）
新全免疫元　エルスチン（에루스찐）
驅梅特効藥　イダロシン（이구로신）
淋病治療藥　イスラビン（이스라빈）
深部表面殺菌消毒劑　リマオン（리마온）
鎭痛鎭痙藥　パビナール（파비날）
營養強心劑　ロヂノン（로디논）
肺疾治療藥　ロヂノンカルチウム（로디논갈슘）
祛痰鎭咳劑　ネオエバニン（네오에바닌）
胃酸過多治療劑　ノルモザン（노루모잔）
強心利尿劑　ロデアリン（로데아린）
新强心劑　ビタカンフアー（비타감화）
新吸着劑　アルシリン（아루시린）



武田規那農園全景（在南洋）爪哇



←製藥本工場

營業部↗

鮮內各地藥店에잇合

# "米國關稅引上"

## 日本이協定拒絶한때문 —『루』大統領談—

(寫眞은 루米國大統領)

【華盛頓二十二日發電通】루즈벨트大統領은 二十一日 外國綿布에 對한 關稅의 大幅引上斷行을 命하엿는데 二十日 引上斷行에 對하야 政府는 日本으로부터 綿布輸出自制의 紳士協約을 하랴고 努力하엿스나 畢竟 失敗에 도라갓슴으로 이번의 關稅引上은 不得已한 手段이라고 말하엿고 그리고 政府關係當局에서는 다음과 가티말한다 關稅引上은 比較的 日米綿布協定과는 別個로 協定은 依然 有效하고 目下 이에關한外交交涉은 안하고잇다

## 大幅引上要求

### 立案者메氏談

【華盛頓二十二日發電通】이번의 綿布關稅引上斷行의 原因을 맨든 決議案의 立案者인 米國上院議員 메트가프氏는 그 引上率은 아즉 不充分치 안흠으로 政府에對하야 大幅의 引上 도는 輸出統制의 實施를 要求할터이라고 말하엿다

## 關稅方面要慮

【東京電話同盟】昨年末 齋藤駐米大使와 米國國務省當局間에 開始되든 日米綿布協定交涉은 二十一日에 決裂되야 루즈벨트大統領은 同日 晒 其他의 綿布에 禁止的關稅引上을 發令하엿는데 右引上으로 日本의 對米綿布의 大部分인 晒色染物은 거의 輸入禁止와 同樣의 制限을 밧게되엿슴으로 그 推移는 實로 重大하다 米國當業者側은 今年第一四半期의 日本의 對米綿布輸出이 一千二百五十三萬碼로 昨年同期의 一千二百七十六萬碼에 比하면 約七割以上의 激增이 될것을 指摘한것이다 右日本의 綿布輸出量은 全米의 綿布消費量에 比하면 全然 九牛一毛에 不過할것이다 그런대 루즈벨트大統領이 右와 如한 措置를 取한것은 大統領選擧戰에 際하야 人氣를 收得하기爲한것으로 매우 遺憾된일이다 特히 日米綿布問題는 日本의 對米綿輸入의 第一顧客임을 無視하고 이번에 綿布輸入禁止와가튼 措置를 取한것은 日米通商關係를 더욱 惡化케하는것이라하야 外務當局은 遺憾의뜻을 表하고잇다 米國이 綿布輸入을 制限하는 措置를 取하지안코 對米輸出手段의 自制를 하는것은 不得已한바 關係方面은 非常히 憂慮하고잇다

## 自制自制?

### 日本側의 觀測

【大阪電話同盟】米國政府의 綿布關稅引上에 對하야 日本綿業者는 恐慌하야 紡績七社 輸出九社로서 組織된 日本對米輸出綿織物協議會에서 制限하여오든 晒木綿의 統制를 昨年四月中旬以來 自發的으로 事態가 이에 이름을 보고 廢止키로 決定하고 이로因하야 日本綿布에 對하야 六月二十日 關稅引上實施를 압두고 投機的으로 市場에 殺到하야 實際後라도 低廉한 日本綿布는 依然히 米國市場에 殺到할것으로 觀測되야 結局 米國側은 自制自制에 빠지게될것이라고 한다。

## 米國의猛省要求

【東京電話同盟】日米綿布協定의 決裂은 昨年 日本에對하야 輸出統制를 維持하든 米國이 다시 日本으로부터의 輸入品을 排斥하야 一方的貿易을 强化케하라는 淺慮에 나온 第一着手로 그 推移가 重大되는데 有田外相은 日米貿易을 有利히 調整하고 米國朝野의 猛省을 促하야 兩國經濟依存의 關係를 圓滑케하기 爲하야 지난十四日 東京發赴任한 駐白大使來栖三郎氏로하여금 特히 米國을 經由케하야 齋藤駐米大使와의 密接한 提携로 日本對米通商政策의 骨子를 米國朝野間에 浸透케하기로 하엿는데 前通商局長으로 日米通商問題의 根本方策確立에 專念하든 來栖大使에게 期待가 크다

## 協定決裂公電

【東京電話同盟】齋藤駐米大使로부터 二十二日外務省에 達한 公電에 依하면 日米綿布協定은 事實에 決裂의 運命에 逢着하게되엿다 그리고 大統領은 昨日 關稅法第三百三十六條에 基하야 綿布關稅附加稅四割二分實施를 公布하엿다

## 米國에對해 擁護法을

### 發動하라要望

【東京電話同盟】米國政府의 輸入綿布關稅引上이 現行率에 比하야 겨우 一割二、三分程度로 日本綿業界의 打擊은 直接 甚大치안흐나 日本綿業界의 人心을 激化케함은 甚大하다 期間對米綿布輸出量은 昨年四月의 晒綿布問題에 發端하야 그뒤 日本官民間에 對米綿織物協調를 繼續하야 對米를 不拘하고 이번의 關稅引上을 보게되것이다 米國綿業의 實勢는 總消費七十億方碼로 그中輸入綿布는 七千萬方碼인데 그中日本綿布가 占한것은 約六割程度로 이것을 貿易統制에잇서서 徹底하고 日米貿易은 昨年度에 日本側이 一億七千萬圓의 輸入超過된 實情임을 不拘하고 米國은 本品의 進出을 阻止함은 不當하고 米國에 對하야도 通商擁護法을 發動하라는말이 相當히 생기고 잇다

# 高米價策强化로 換畓傾向顯著

## 米作安全性倍加 豫想으로 農家에서 注力하는 때문

昨年來의 米價高는 朝鮮農家에 잇어서 무엇보다도 반가운 現象으로 農村經濟는 얼마간 潤澤하여진感이잇다 그리고 압흐로도 米穀統制法에依한 政府買上政策도 좀더强化되고 또自治管理法이며 正租貯藏法等도 米商에게는 不利하다고하나 大體에잇서서 米價高政策에 並行되는것이 어서 今後의米價觀은 大勢로보아 最低公定價를 上廻하는 高市勢가 保持될것은 勿論인데 이러케된다면 朝鮮에서는 어느農作보다도 有利한地位에잇는米作은 좀더安全性을 가질뜻 싶다 이런情勢에處하야 農家에서는 米作에 注力하는 傾向이 顯著하여젓다는것이다 即 土地改良事業에依한 水利組合事業은 中止되엿스나 個人으로서는 田畓으로 地目變換하는것이 相當히잇다하야 總督府土地課에서는田地開墾事業의 調査를 하면서 이에對한 大略한調査도 하고잇는中이라한다

# 工業原料用 作物增産計畫

工業用原料作物로小麥、玉蜀黍、馬鈴薯、釀造原料、大麥其他特用作物의增産은 이미 各方面에서 要望하는데 總督府에서는 十一年度以後 十年計畫으로서 此等作物의一大增産을하라고 目下農産課에서 立案하야 產業調查會에 도 提案키로된바 그增産의對象은 一、小麥=朝鮮內에 小麥、自給을 圖하고 輸移入을 解消

二、釀造用大麥=麥酒原料自給을 爲하야 約五萬石의生産

三、玉蜀黍=滿洲로부터 約十萬石餘를輸入하는데 이것을 自給

四、馬鈴薯=澱粉工業을殷立하고 또 食糧自給上 이것을 增産

六、其他諸特用作物=纖維工業原料를 비롯하야 諸種農産의增殖等인데 從前의 失敗와는 그趣旨가 달녀各作別로 適地를 目標하야 各作適應의 個別的獎勵를 할豫定이다

# 米生産費調查 結局流會

外地米生産費協議는 四月下旬으로부터 內閣調查局에서 열고 十年外地米生産費의 審議를 한바 依然 內外地의主張相違로 最後的決論에 못이르고 議會關係로 審議가 中止되엿다 米穀三法案의 通過에 依하야 關係當局 意向도 多少 變化되엿슴으로 ...

# 創立總會

## 二十三日開催

### 巾着網水組

東海市着網水產組合創立總會는 二十三日午前九時부터 京城商議에서 開催組合長에는 佐佐木準三郎 副組合長에는 天野新治郎氏가就任하얏다

## 日産、自動車 大工場設置

### 제社와交涉決裂

【東京電話同盟】日本産業會社에서는 昨年以來 米國제네랄모타쓰會社間에 日本제네랄모타쓰會社를 買收하라고 交涉中이더니 그뒤 米國제네랄모타쓰會社側은 日産과의 共同經營에對하야 反對的態度에 이르럿슴으로 日産에서는 이번 右交涉을 中止하고 同社單獨으로 大型大衆車의 生産에 進出키로 決定하엿다 日産의計畫인 大型大衆車의 生産目標는 年産約三萬臺로 橫濱子安의 日産自動車會社工場을 擴張할豫定으로 當初는 約三千萬圓의 資金을 充當키로되엿다

# 夏節米運賃

## 京城서協商

朝鮮米夏節運賃은 關係船會社로부터 各荷主에對하야 七月一日부터 二十五圓引上을要求하고 五月末까지에 各其回答을 求하얏다

## 信託小口化傾向

朝鮮信託의 信託勘定은 漸次增加하야 五月廿日現在로 金錢信託은 三千七百六十三萬圓、不動産信託 一千五百七十三萬圓에 達하다 最近의 傾向은 此等信託의 少額化傾向이 顯著하야 金錢信託에잇서서는 平均五千圓가량의 信託預金이 最多하고 從來와가티 萬圓單位의 預金은 그대지 만치안코 또不動産信託에 잇서도 平均五萬圓가량의것이 最多하야 漸次少額으로 變化한다 即 現在受託件數는 金錢信託七千件

# 米自治管理法案

## 波瀾裡通過經緯 ● 經濟關係法解說

目下 開會中에잇는 特別議會에 提案된 四十餘의 法案中 그大部分은 經濟關係의 立法이다 即 二代、三代의 內閣에서 決定을 못지은 米穀自治管理法案、重要肥料業統制法案等等으로 이어잇서 이미 貴衆兩院을 通過하고 可決確定된것 또는 審議中이나 그過程가 重要한것에 對한 經過를 간단히 紹介하면 다음과 갓다。

× 米穀自治管理法案의 經過가 어떠한 것을 거쳐왓는가 보자 이 法案은 衆議院에서 可決되고 지금에는 貴族院에 送付되여잇다 그런데 衆院의 空氣는 매우 險惡되어 衆議院을 通過한法案은 大體 通過케하여버리라는것이 事實이다 이것은 全然 利害關係를 맺고잇는것으로 大衆生活問題가 關聯되다 昨年에 米穀商의 猛烈한 反對가 展開되엿스나 今年에는 議會에서 …

面에 反對運動이 展開치못하고 比較的平穩裡 이法案이 議會에 上程되엿다 이案에對한 條文의審議는 이미 三年間 討議를 하여와다 即 齋藤內閣의 後藤農相時代에 立案되야 岡田內閣의 山崎農相은 지난 六十七議會에서 前後十八回의 審議에 出席하고 延長議十日의 惡戰苦鬪를 하엿스나 何等의 決定을 못보고 이번에다시 島田農相의 손으로 衆議院을 通過하고 지금에는 貴族院通過도 確實하에 이르럿다 內閣이 三次어나 갈리고 따러서 農相도 세사람이나 變하야 그동안 모든 議論은 充分히 되엿다고 말할수잇다。

× 그러면 무엇이 남어 잇섯든가 하면 이것은 議論이아니라 그것을 너머서 深刻한 利害의 點에 잇섯다 農民、米穀商과 官僚間에엉킨 生活의 鬪爭이엇다 問題가 다만 論에잇섯다고하면 벌서 妥協되엇슬것이다 立場에 따러서 그利害가 相反됨으로 與黨인 民政黨에잇서도 黨議가 四分五裂의 危機에 逢着하엿다 아모리 結束이 鞏固하다는 體系도 그溢出의 地盤이 달는以上 쌀이란 現實的問題에 드러가서는 到底히 利害가一致될수 업는것이다 그러고 國會外에 잇서도 產業組合側、反產側의猛運動이잇다 그러므로 本會議는 勿論 委員會까지 議員의 一言一句를 떼여놋치안코 嚴重한監視를 하는터이다 또 米穀院으로서는 이미 政府가 六十七議會의 修正意見을 著實히 勘酌하야 提出한 以上 할수밧게 審議未了로 할수업섯고 黨으로서도 島田農相을 내인政友會는 勿論、民政黨의 面目上 어느때까지 不鮮明한態度로 나아갈수는 업섯다 그래서 反對論者에게는 할말을 다하게한뒤 多數의힘으로 黨議에 屈伏케하는手段을 안흘수가 업섯든것이다 또 反對論者는 이法案을 絕對反對를 한뒤 할수업시 黨議에 委치게되는것을 보히지안코는 再次選擧區의 地盤을 엇기가 어려웟든때문이다。

× 무슨까닭에 米穀自治管理法案의 論議가 그처럼 白熱化하엿든가 그리고 最後의 事態에 이르럿는가 하면 이것은 오즉 地域代表로 選出된代議士가 利益代表로 그任務를 다 못한곳에 그理由가 잇다(續)

# 米穀自治管理法案 貴族院도希望決議

## 二十二日委員會서決定

【東京電話電通】二十二日午後의 貴族院米穀自治管理法案委員會는 午後一時四十一分 再開하야 希望決議를 附하고자 小委員을 設置하고 一旦休憩하엿다가 結局 다음과가튼 希望決議를 附하야 原案을 可決하고 午後五時二十八分에 散會하엿다

▲希望決議

一、政府는 米穀의 生産配給消費에 亘하야 內外地를 通한 基礎調查를 整頓하고 米穀事情變化에 適應한 米穀政策樹立과 運用에 遺憾이 업슬을 期할일

二、政府는 米穀統制에 關하야 各種法制의 適正한 運用에 對하야 指導監督을 周到히하고 日本內地朝鮮臺灣의 官廳事務及協力에 關하야 遺漏가 업슬을 期할일

三、政府는 米穀統制施設에 依하야 米穀의 取引及 配給機關에 미치는 影響에 關하야 適當한 對策을 講究할일

◯義州鑛山總會 義州鑛山에서는 二十二日午前十一時同社에서定時總會를 開催하고 利益金處分案(年十六分配當)을 可決하얏다고

# 財政部密輸防止

## 輸入貨物運送販賣 檢査規則公布實施

【南京廿二日發同盟】財政部는 密輸防止正當商業保護를 名目으로 二十一日附로 輸入貨物運送販賣檢查規則을 公布即日實施한바 그要旨는 다음과갓다

一、國內販賣의 輸入貨物로 財政部의 規定하는 貨物은 本規則에依하야 檢査(第一條)

一、右輸入貨物을 運送販賣하는 商人은 海關에 對하야 納稅證據로 運輸販賣證明書의 支給을 바든뒤 비로소 運送함을得함(第二、三條)

一、指定目的地에 到着하면 該地同業公會에 證明書를 提出詳細登記를受함(第四、五條)

一、右地點에서 다시各地에輸送할境遇는 同公會에서 輸送證明書의發行을 바듬일(第六條)

一、輸入貨物을 運輸販賣하는商店工場運送會社는 財政部指定의機關에 對하야 詳細登記하고 證明書의支給을 受함을 要함(第十一、十二條)

一、違反者는 百元以上 五千元以下의罰金 或은 營業停止其他罰則을課함(第十三條로부터十六條)

一、未納稅貨物은 海關密輸取締條例에 依하야處理함(第十八條)

# 局線荷動好調

鐵道局 五月中旬의 荷動은 依然好調로서 粟、大豆、麥、麵等一部少量減을 보앗스나 米、正租는 前年에比하야 一一〇%의 增加이오 木材四四%、肥料三六%、石炭一八〇%增加로서總計三〇%의 增加를 示하얏다

# 米日爲替暴騰

【京城廿二日發同盟】廿二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比較하면 五仙高 買二十九弗十六仙으로 五仙高

| | 賣 | 買 |
| --- | --- | --- |
| ▲東京爲替 (廿三日) | | |
| 對米 | 二十九弗八分一 | 二十九弗六分三 |
| 對英 | 一志二片十六分一 | 一志二片卅一分三 |
| ▲大阪爲替 (廿三日) | | |
| 對米 | 二十九弗十六分一 | 二十九弗八分一 |
| 對英 | 一志二片卅一分一 | 一志二片十六分一 |

# 無盡統制强行

不動產信託四百件에 達하다고한다 京畿無盡統制는 依然不振狀況인데 今次의 人事異動에잇서大島內務部長轉出로 從前의 感情的分子의 一掃도 豫期되고 總督府도 强固한 統制促進意向임으로 今月末乃至 來月上旬再會合을 行하야 反對가 相當히强하면 四社中一社를 除外하고 三社合同으로서 進行方針인것가타 無盡統制도 强化되리라한다

# 東銀人事異動

五月廿二日附로서 東一銀行의 支店人代理級異動을 다음과 가티 發表하엿다(括弧內는前任地)

▲命本店在勤 咸興支店支配人(天安支店支配人代理) 李正燮 ▲命咸興支店支配人代理 宋晉球 ▲命天安支店支配人代理(江景支店支配人代理)閔泰權 ▲命洪城支店瑞山出張所駐在(洪城支店支配人代理)高信源 ▲命洪城支店廣川出張所支配人代理(瑞山支店在勤職員)李康洞 ▲命實勳洞支店店內支配人代理(實勳洞支店)黃世鎬 ▲命洪城支店瑞山出張所支配人代理(永登浦出張所支配人代理)沈鎔秀 ▲命元山支店支配人代理 李敏世 ▲命永登浦出張所店內支配人代理(瑞山出張所支配人代理)任廣鎬 ▲命本店預金係主任 尹弘奎 ▲命江景支店支配人代理(長湖院支店)尹殷炳 ▲命西大門支店店內支配人代理(西大門支店)李揆玉 ▲命咸興支店興南出張所支配人代理(興南出張所店內支配人代理)金敎明 ▲命長項支店支配人代理 李貞常 ▲命長湖院支店店內支配人代理(實勳洞支店在勤職員)崔學善

# 經濟點描

◯ 各主要港在米는 아즉도 昨年同期보다 만타고 아즉도 先高豫想 買權이 相當한모양 너무 慾心부리지 마는것이 若何?

◯ 米穀自治管理法案은 貴族院委員會서도 希望決議로 決定

◯ 數年來 問題되든 自管案이 인제는 정말 實施케 될모양

◯ 쌀틀 꽤서노면 經濟的으로 아모것도업는 朝鮮의 影響을 똑똑이 생각해봅시다

◯ 信託小口化 傾向이라고 大口는 다한거지

# 商況 【廿三日】

## 株式 懸材料로 下落

前場急落 米國關稅引上悲觀으로 休日을압두고 今前場半日立會는 小口投賣과 懸案賣로諸株一齊急落不動이엿스니 卽昨後引에比하야 東新二圓九十錢低인 百三十三圓五十錢 鐘新一圓低인 百五十一圓六十錢 大新九十錢低인 七十四圓丁 朝新四十錢低인 二十六圓四十錢 日産新二十四圓六十錢 北二圓丁 紙五十錢低인 二十二圓五十錢에 各低落大引

▲東新 [illegible]

# 東新今後如何

## 大幅變動難期?

東新이 新價에서 新價로 小口로 諸株一齊賣人氣로 低落되어 東新百三十三圓臺、鐘新百五十一圓臺에 떠러지고 形勢不良이엇다。

◯株 ▲議會無事不日閉幕으로 當然 一高가 豫想되더니 米國의 日本綿布關稅大幅引上이 惡材料로 뛰어나와서 下落▲七圓臺까지올라가던 東新이 三圓臺로떠러지니까 罫線으로 反賣이라고떠든다▲關稅引上이 發表하기前에는 꼭 賣線이엇던가? ▲언제던지 一致된 觀測과는 反對되기쉬운 것 ▲議會閉會後 一高期待가 너무나 一致되엇던것이 자미업는것▲그러나 이것쯤가지고는 無暗明落도업겟지 ▲問題는 產業統制、增稅로 다시떠러지나 그리기前에는 相當한 高價를 보이겟느냐에 잇슬뿐

◯米 ……▲昨今 仁川에 到着되는 玄米는 一日平均 五、六車밧게 아니다나 一車가二百石밧게 아니되는군▲이와가튼 狀態로 繼續된다면 已無 時日이 갈사록 減退할모양이니 압흐로의 米價는 어느程度까지의 昂騰은 豫想못할모양▲今年은 朝鮮米의日本內地移入을 一千萬石으로豫想하고잇다▲그러면 日本內地의 食糧問題는 그러저럭 解決되려니와 反面의 朝鮮은 그만큼 飢餓를 늣기게 될모양

# 期米 操合後에 上伸

前場操合 昨後場阪地三十三圓○四錢止와共히 三十圓七十七錢에寄는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三圓○一錢인 二丁反落을 操하고 三十圓七十六錢인 一丁低로 寄始한後阪地○一錢을 最低로 一、二錢에서操合하다가 ○四錢에止場하얏슴에 市場은 七十九錢에少强히 揚章止하엿다

## 後場上進

後場은 三十圓八十錢에 一丁高로 始場後二節八十錢 五節八十三錢에 上伸이고 八十二錢에 止場하다

## 大波瀾期待難

### 平均賣의關係로

五月一日現在日本內地殘存米發表와 此豊目標로한 前途需給推算에 依하면 民間의 在米라고는 可憂할餘地가업는줄 政府로서반드시 飯米不足을 補充할만한程度의 拂下를 斷行할것만은事實일것이다 그러나 目前의 現象으로는產地農家의 在米가업는바 가아니오 딸아서 政府米의 拂下할時期가아니다 그런데 今春以來의 米界는 春暖期의 一齊도 엇시 植付期에 臨迫하여와고市勢도 三十一圓臺에 肉迫하여왓合으로 買方으로서도 警戒不怠하는 光景이며 賣方으로는 市勢가 高位置에잇는만큼 賣實成

##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 | 當限 | 中限 | 先限 |
| --- | --- | --- | ---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堂島前場賣買

▲賣方=株式側 神戸乘替 地場弱氣 ▲買方=地場强氣 中東側 西山側

## 各地正米

### 京城小康

取引은 引立치안흐나 當用實需側의 適當買로 人氣小康을 回復하얏다 丸仁三等三十圓○五錢 四等二十九圓七

# 實物前場取引

▲大同電力新二〇〇 ▲日滿아루미四一七〇 ▲朝鮮製鍊一二〇〇 ▲東新普率九八〇 ▲豐水浩糖新一四五〇 ▲日糖新八〇〇〇 ▲大同產業二五〇一七〇 ▲도라지鑛業一八五〇一七〇 ▲滿州煙草一二八〇 ▲帝麻新二〇三〇(取引高二四〇枚)

## 東京國債市場

休日을압두고 買氣一掃이오 利喰이마저 米貨一圓十錢低를비롯하야 內國債도各十錢下押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一、〇〇
一回四分利 一〇三、九〇
佛貨四分利 一九八、二五

# 米出廻漸減退

## 一日平均千石

仁川에到着되는玄米는 全部汽車便인데 昨年十二月과如한出盛期는 每日四十車乃至五十車이든것이 今年二月에入하야는 平均三十車、四月에至하야는 平均十車이엇스나 今月은又一層減退하야五車乃至六車밧게아니되며 市中賣買도閑散하야 宛然한減盛期의現象을보이고잇다 一車의 積量이大略二百石으로 五、六車의 合計가 千石乃至一千二百石에 不過할뿐아니라 時日를 經過할사록 漸次減退하야七、八月頃에는 全無할모양이다 그럼으로 압흐로의 天候가 마치 何如할지는 몰흐나 設或 植付의 樂觀을 못한다할지라도 土用、二百十日、二百二十日、白露等의 모든危險期를 압두고 農家의 그自身이 찰아리 平均賣를 할지언정 一時賣急을 하지 안흘것가틈으로 大體市勢의 深入落은 期待키 難할것으로 觀測하고잇다

# 仁川少强

人氣는 鎭하나 高地實物需과 正租高의後援으로 五錢高唱이엇다 丸仁三等三十圓五錢 四等二十九圓七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四十五錢

# 釜山不動

滿氣의 新保合을 보고 依然 閑散에 新味가 업고 小口가 實需買한것으로 日本內地側은 米穀管理案의 形勢를 보고 沈默이엇다 角フ三等二十九圓六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 大邱不變

賣方의 態度는 依然 强한 一方 買方은 實行不振과 定期不動으로 氣迷이어서 目前 顯著한 取引을 難期狀態이엇다 角フ三等二十九圓四十錢 四等二十九圓十錢 白米十二圓十五錢

# 群山少弱

商옹 鎭靜하나 買氣을 誘發함만한 刺戟力이업고 定期不振으로 氣配五錢低인 角フ三等三十圓二十五錢 四等三十圓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 木浦强調

日本內地로부터는 意外히 消極的注文밧이고 當地側期米採算側에 買運되어 唱은 十錢高이엇다 丸木三等三十圓三十錢 四等三十圓丁 一等白米十三圓丁

# 今日財界 (廿三日)

◆米

| | | 今日 | 比前日 |
| --- | --- | --- | --- |
| 仁川期米 | 先限 | [illegible] | [illegible] |
| 大阪期米 | 先限 | [illegible] | [illegible] |
| 仁三等米 | 一石 | [illegible] | [illegible] |
| 正租(仁川)一等 | 一斤 | [illegible] | [illegible] |

◆金融 ◆市中金利 [illegible]

◆株

| | 今日 | 比前日 |
| --- | --- | --- |
| 朝取新 | [illegible] | [illegible] |
| 東新 | [illegible] | [illegible] |
| 日産 | [illegible] | [illegible] |
| ◆商品 | | |
| 大阪綿絲 | [illegible] | [illegible] |
| 大阪綿花 | [illegible] | [illegible] |
| 大阪人絹 | [illegible] | [illegible] |
| 大阪砂糖 | [illegible] | [illegible] |
| 고무現 | [illegible] | [illegible] |

株式 期米 玉 柳來楦商店

仁川 福 米 期 吉村取引店

朝米取株 光 康益商會 仁川府海岸町三丁目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金益證券株式會社 代表電話本局②五一八六番

# 朝取短期 (廿三日)

[illegible]

# 朝取期米 (廿三日)

[illegible]

# 東京短期 / 大阪短期 / 大阪長期 /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 大阪期米 / 大阪正米標準價 / 大阪期米取組 / 大阪市中在米高 / 東京期米 /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 金融 (廿三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圓入價 ◆東京市中金利 ◆京城市中金融債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 米圖 (廿三日)

◆仁川正米大豆 ◆京城正米 ◆京城雜穀

[illegible]

# 商品 (廿三日)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綿布 ◆鐵油市價 ◆鐵神船市價 ◆大阪綿絲 ◆大阪棉花 ◆大阪砂糖 ◆各地人絹 ◆橫濱生絲 ◆海外砂糖 ◆各地正租市勢 ◆日本各地期米 ◆大阪綿糸 ◆日本豪物市勢 ◆滿洲商況 ◆大阪綿絲市勢

[illegible]